Contents

대담	여는글	_ 편집부	02
	17대총선과여성의정치세력화	_ 편집부	03
집중캠페인	회원확대캠페인‘ 마녀들의달팅 ’	_ 인은숙	12
여성공감/여성 그리고 가족	가족에대한단상	_ 권미혁	16
	봄날, 가족들의추억	_ 손영옥/박미숙	18
	건강가족기본법다시보기	_ 조은희	20
	이혼전상담의무화, 문제있다	_ 유경희	22
역사 속 여성들	인간으로살고싶었던나혜석	_ 강도은	24
생협 15주년	나를새로태어나게해준생협	_ 박임성아	27
시사	여성주의시각에서본일자리나누기프로그램	_ 이주희	30
	이라크, 그리고한국군의파병	_ 이대훈	33
취재기	내몸의주인은나! No 다이어트, No 성형	_ 황은영	36
방송모니터	드라마속의외모지상주의	_ 권지현	38
칼럼… 창	여성과언어‘ 말이씨가된다 ’	_ 유기성	40
인터뷰	새로운삶의의미를찾아서	_ 홍미용	42
회원이야기	어느가난한기자의독백	_ 윤옥경	44
	그날이후	_ 한경희	46
민우소식	민우소식 · 달력	_ 편집부	48
	민우소모임	_ 편집부	52
독자마당	독자의견, 신입회원명단	_ 편집부	53

2004. 05 · 06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 김상희
편집인 | 최명숙
편집위원 | 권미혁오정아유기성정은숙홍미용황은영
디자인 | 큰사람기획(02-2264-3068)
발행일 | 2004년5월 31일통권 162호
주소 | 서울시종로구평동27-9 동평빌딩4층
전화 | 02-737-5763
전송 | 02-736-5766
이메일 | minwoo@womenlink.or.kr

4.15 총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이야기

4.15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의 한가운데서 치뤄지면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제대로 된 정책대결보다는 탄핵, 노풍, 이미지 정치등분위기에편승하는것으로진행이 되었지만결과적으로는보다 진보적인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였고, 여당이 제1당이 되었으며, 여성의원이 전체 의원의 13%로 확대되었다. 물론 그 뒤안길에는 지역주의에근거한보수세력인구시대정당자민련과민주당의몰락이있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 국민으로서는 직접적인 정치참여행위이기도하다. 그러나그동안우리 정치의후진성으로인해 선거를통해구성된 국회가민의를대변하지 못하고 권력구조로서 왜곡되어지고 부패 ·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으며, 지역정치, 금권정치, 보스정치, 소외의 정치 등의 부끄러운단어를 만들어 냈다. 거기에 덧붙여 16대 국회는 자기들끼리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으니…

그러기에새롭게 17대국회를구성하는4.15 총선은국민의참여로' 미워도다시한번 '이라고우리정치의후진성을탈피해제대로된민주주의를완성시켜볼수있는시험의장이었으며, 새로운인물로의교체가기대되는장이었다.

더불어여성계에서는 그 동안제도권내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국회여성의원비율 5.9%)을 극복하고여성의 대표(여성주의적시각을갖춘)를제도권내로진출시킬수있는기회의장이자, 여성의 정치세력화를이루는 토대를만들어야하는 절대절명의시기이기도 했다. 일상에서의여성의 정치세력화와선거라는 제도권내로의진입을 말하는특수한기간의 여성의정치세력화는어떤정세판단하에전술을세우냐에따라그뜻이같이할수도, 달리할수도있다.

이번 4.15 총선을 맞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펼쳐놓은 여성계의 활동방식은 제도개선운동을 시작으로 후보추천운동, 낙천낙선운동, 유권자운동, 여성정책제안 운동등 다양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범여성계(진보, 보수의 구분없는)가 함께하는 총선여성연대가 결성되었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를 형성해서 직접적인 여성후보자 발굴을 시도했으며, 맑은정치여성기금마련을위한운동본부도만들어졌다.

이런운동의성과로결과적수치인여성국회의원13% 확대는상당히고무적인일로평가되나, 그이면에는여러가지입장이 존재한다. 여성정치세력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에서부터, 진보적 여성 운동성을 드러낼 수 없었던 한계를가진총선여성연대에대한평가, 또맑은넷구성에대한문제제기부터후보추천방식과그 결과에대한다면적인평가등…

이런 여러가지 물음을가지고4.15 총선을맞아 열심히활동한 여성계를평가해보고 성과를함께나누며앞으로의과제도고민해보는자리로일명' K · K 대담 '을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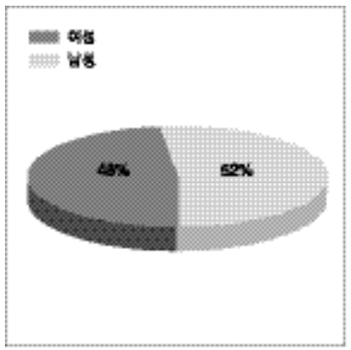
K · K 대담_ 그녀가 그녀를 만나다!

● 일시: 2004년 5월 7일 늦은 1시~ 4시 ● 장소: 서대문의 한 음식점
● 대담자: 김경애(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정리: 정은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무국장), 오정아(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정보홍보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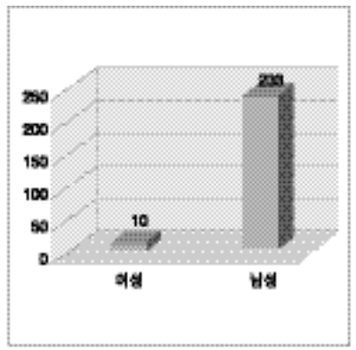
17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김상: 이번17대총선에서는비례대표50% 여성할당확보와지역구10석을포함한전체여성의원비율13% - 비례대표 29명, 지역구 10명 - 획득이라는결과를통해서여성의정치참여, 정치세력화에많은성과를냈습니다. 이에대해여성운동이기여한 부분이 많다고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언론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여성이반수이상이된것처럼호들갑을떨고있지만, 전체의원의 13%이고, 지역구의원은 243명 중 단지 10명일 뿐입니다. 아직도세계평균에는못미치는상황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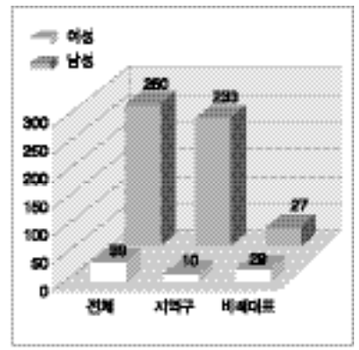
김경: 이는분명히전반적인여성운동의성과로봅니다. 범여성계가뭉쳐서비례대표여성할당제50% 획득은제도개혁의큰성과입니다. 그러나우려의지점도있습니다. 여성운동계에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논리로서여성의대표성확보, 깨끗한정치, 정치문화개선을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당선된39명의여성의원들이 정말여성의 대표성을 갖는가, 이 여성들로정치문화가바뀌고깨끗한정치를이루어낼것인가, 더욱더여성운동계가이것을어떻게이끌어가고담보해낼 수있는가에대해서생각해볼부분이많다고봅니다.



<표 1> 17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성비



<표 2> 17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성비



<표 3> 17대 총선 전체 당선자 성비

정치권의 새로운 전환점, 여성 정치세력화 확대의 기점으로서의 17대 총선

김상: 여성계는 이번 4 · 15 총선이 정치권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여성정치세력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사적으로 70년대 이후의 3김 정치가 막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등의제도개선이되고그로인해진보적인인물교체가이루어진다면정치구도가많이달라질수있다, 그리고달라져야한다는당위가있었습니다.

4.15 총선에대응한여성운동계는총체적인접근을시도했었습니다.

후보추천운동을 위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을 만들어서 여성 정치인을 발굴 · 추천하고, 이후 당선운동까지도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반여성적후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낙천낙선운동과 각정당에 여성정책을 제안하고더불어 각정당의여성정책도평가하는운동도진행했습니다.

그리고제도개선투쟁에 정말총력을 기울였죠. 우여곡절 끝에 제도개선 - 비례대표여성 할당제 50% 확보, 비례대표 의원 수확보등 - 을이끌어냈지만, 탄핵국면으로접어들면서각정당의비례대표선정과정, 지역구선정과정, 정책평가이후의 당선운동, 유권자운동등이제대로연결되어진행되지못했습니다. 후보추천과제도개선운동으로머물렀던거죠.

여성운동세력들도탄핵무효화투쟁에전력을다하면서다양한활동들을펼쳐낼수없었구요. 특히비례대표등에서의여성후보의질적인부분에대한담보와유권자운동에대해서너무나도아쉬운부분이많이남습니다.

결과적으로39명의여성의원의당선은제도개선의성과였고, 정치적상황이급변하면서계획했던모든활동들이성과를거두지는못했지만, 여성계의정세판단은옳았다고생각합니다.

김경: 비례대표50% 확보라는제도개선은큰의미가있지만, 그이후경선이나비례대표선정과정에서의제도적인부분에서는 거의영향력을발휘하지못했다고봅니다. 따라서, 각정당에서비례대표를선발하는과정에대해여성운동계가분석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의경우공천과정에있어서 경선이라는 단계를 거쳐 일면 민주성과객관성을확보했지만 그과정을통해선정된후보들이다른당보다훨씬대표성을갖거나우월하다고볼수없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일겁니다.

김상: 이번총선이부실하게치뤄졌던부분은동의합니다. 정치관계법이선거운동시작한달전에야겨우확정되면서많은혼선들을가져왔고, 비례대표의석수도30석정도까지줄어들것이라예상되다가선거직전에서 56석으로확보되었죠. 그속에서실제적인당내민주화가담보되지못했다고봅니다.

누가,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주장하는가

김경: 또한, 이과정에서여성전용선거구제가제기됐는데이로인해일정부분여성운동계의논리나힘을약화되었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왜 주장하는가 ’라는 철학적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게됩니다. 오히려여성을주변부화시키면서여성들끼리의경쟁만을 부추기는 아무런 의미없는제도라고보거든요. 오히려여성의정치세력화에거부감을주었다고봅니다.

김상: 이에대해서는오해부분이있습니다. 2003년도에정치권에서여성전용선거구제를제안했었습니다. 여성계는당연히반대했죠. 말씀하셨듯이, 여성정치참여확대라는기본취지에도어긋나고여성의주류화의원칙에도맞지않으니까요.

그런데, 2004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권이 의원정수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까지 줄이고,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만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이 과정에서 정치권내의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여성전용선거구제 가제기되었던것입니다. 이또한3당이모두합의를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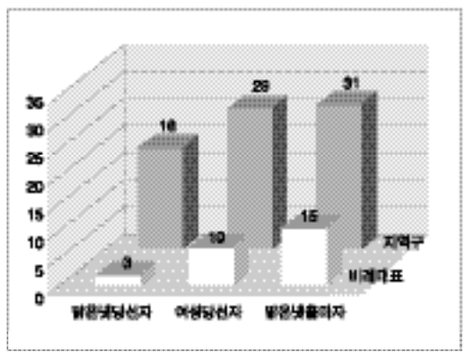
여성운동계도궁여지책으로17대국회에서만한시적으로받아들였던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맹렬한비판이제기되면서 쟁점사항이되었고, 오히려여성정치참여확대의 필요성과 방안이 재논의되면서 정치권에서모두 합의해버린‘ 여성전용선거구제 와의원정수를‘ 재합의 하는전환점이마련된것입니다.

결과적으로위기상황을돌파하는계기가되어, 결국비례대표의석수가56석으로늘어난것입니다. 이것또한아이러니한 거죠.

김경: 일부에서는왜대중참여운동을하지않고제도개선과정치참여부분에만집중하느냐는비판들이있습니다. 즉, 유권자운동부분이미약했다는거겠죠.

김상: 여성단체의일상활동이정치의식고양운동이고, 생활정치운동이며곧유권자운동입니다. 그기반속에서선거라는특정한 정치 국면을맞아, 앞서얘기한 정세 판단에근거한제도개선운동과정치진출운동은당연한 과정이고결과라고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개선이나정치권을압박하는운동에있어서대중참여방식을개발하고유권자들의참여속에서이운동을벌였다면훨씬더큰힘을발휘하고더불어여성유권자들의의식도함께고양되었을텐데하는아쉬움도많지만, 상황과우리들의능력에있어서어려웠다는것을인정합니다. 그리고선거국면에서의유권자운동을계획했었으나탄핵정국에의해제대로펼쳐지지못했지요.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시작과 끝



<표 4> 출마/당선대비 맑은넷 당선자 비율

김경: 제도개선에있어서맑은넷은범여성계가 뭉쳐서 102인의실물화되어진 여성정치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힘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고, 지금처럼여성의힘이약할때는시도될수있는방법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후보전술이타당했는지는다시한번점검해 봐야합니다. 맑은넷후보추천은일정정도의공신력을 주어서 입후보한 사람들에게 힘을 준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이것은 영원한 과제라고봅니다-, 끊임없이점검해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김상: 이러한 적극적인 후보 추천 운동은 처음이었고, 변동이 극심한 정치상황 속에서 각 당의 후보선정과정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을 선정할 것을 제시했죠.

김경: 하지만102명의여성정치인을그저펼쳐놓은것으로밖에보이지않았습니다.

김상: 사실그랬습니다. 당시에는제도도확정되지않은상황이었고, 각당에서도지역구와비례대표후보선정관련된절차을마련하지못했었죠. 그렇다고우리가그절차를제시, 감시하면서적절히개입해서추천된인사들이후보로선정되게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김경: 102명의 추천된 인물 중에서 21명이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후보로 공천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는가는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정치권내의메커니즘에의해서결정되었다고생각합니다. 결국정치권외부에서후보로당선되게하기위한실질적인힘을발휘하는것은힘들고이러한운동방식은실효성이없다고봅니다.

김상: 저도 분명히 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처음이자마지막 운동방식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를발굴해서추천한다고해도그것을받아들이는판단은결국정치권의몫일테니까요. 시민사회단체의역할이란정당이얼마나민주적이고투명한가를감시하는것이상은할수없다고봅니다.

김경: 그리고맑은넷을결성하고추천명단을발굴하고하는등의내용에있어서철저하게준비되지못했다는인상을줍니다.

김상: 맑은넷 후보 선정에 있어서좀더깊이논의하고조사하고대응했어야한다는평가들이있습니다. 광범위하게여성운동 활동가들과공감하면서논의되지못한것은사실이지만, 17대총선을맞이한여성운동계의대응에대한논의는2002년대선 이후부터시작되었고, 그어느때보다많은논의들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세부내용까지준비하는것에는역부족이었다는생각이듭니다. 처음기획으로는맑은넷을결성하여후보추천뿐만아니라, 선거이후에네트워크형성까지고려했었습니다.

김경: 그런데정당의구성원으로들어간인물들에대해서정당을넘어서네트워크를형성한다는것이조금은환상이라는생각이듭니다. 16대국회까지의여성의원들의관계는오히려정당에따라서반목하는관계이지않았던가요?

김상: 16대국회여성의원수는 16명이었죠. 그렇게수가적을때는남성정치속에바로용해되어버리기쉽죠. 하지만, 이제는일정정도의수가되어자신들의문화를형성할수있게되었습니다. 맑은넷과같은네트워크자체가각여성의원들에게여성으로서정체성을갖으라는압력이될수있는거죠.
현재정당의 스펙트럼상, 정책에 있어서차별성은존재하겠죠. 하지만, 여성사안에있어서는 충분히 연대할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호주제같은전근대적인제도를깨는데는보수와진보정당에상관없이여성의정체성으로연대할수있는것이고, 그기본끈이바로이러한네트워크가되겠죠. 이제는여성정치인이어느정당에있던여성으로서의대표성과대의성을갖도록강제를할필요도있는거죠.

김경: 덧붙여서, 여성운동계리더들의정치진출에대해서짚어야하지않을까요? 여성운동계인물의정치진출에대해서원칙이 제대로적용되었는지, 그리고일련의과정에있어서도여성운동계의평가와반성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궁금합니다. 여성계에서지금원칙에대해서좀더논의를진전시켜가면서정치권과의연결되는부분에대한영향에대해서여성운동단체로서의대응논리와일관된모습을보여줘야할것입니다.

김상: 맑은넷을결성하면서, 능력있고활동력있는여성들의적극적인진출이필요하다고판단했었고, 그러면서여성운동단체리더들에게도그가능성을좀 열어야 된다고 논의되었고, 원칙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과는좀 다르게, 마치원칙없이많은여성단체장들이대거정치계로입문한것처럼비판받았었죠. 진출하는과정에있어서충격을줬던부분이 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무원칙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미지 정치의 한계 - ‘ 여성 이라고 다 같은가?

김경: 사실여성의정치세력화관련해서는여성운동계가95년도이후부터계속, 특히 이번 국면에서 굉장히 열심히운동을 했고, 깨끗한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투여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최대의 수혜자는 박근혜란 이미지를 내세운 한나라당이라고생각합니다.

김상: 민주당과한나라당이탄핵국면의위기를해소하기위해서현재‘ 여성 ’이갖는긍정적인이미지를이용했죠.

김경: 부패된 정치의 현상을 깨끗한 여성으로 해소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박근혜 대표의 단정한 이미지와 부합시키면서 대통령 탄핵의 역풍을 막아냈죠.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장해왔기때문에, 언론을비롯한여성계조차도박근혜를위시로한이미지정치에대해서적극적인비판을하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의 토대는누구나알고있듯이 부정부패의원조였던제3공화국을기반으로서있는데, 그것을현재의‘ 여성 ’이갖는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로 이 모든 것을 상쇄시켜 버렸죠. 결국 이번 선거가 이러한 이미지 선거로 빠져들면서, 한나라당의 부활, 부패정당의부활로연결되는것을보면서정말아이러니를느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39명의여성의원당선을그저좋아할수만은없었습니다.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상: 여성들의정치참여확대를통해서더나아진정치문화가형성될것이라는논조가이렇게활용당하고이용되어이미지정치로변질되는것을보면서당혹스러웠습니다.

김경: 그럼, 이제지역구에관련해서좀더 얘기를해봤으면합니다.지역구당선여성의원이16대국회에 비해서 2배가증가해서 10명이되었지만, 전체 지역구 의원수 243명에 비한다면 10명은 굉장히 적은수에 불과합니다. 당선결과내용을봤을 때도, 탄핵의영향이나지역주의구도에의한것으로,‘ 여성 ’이어서라기보다는전체정치적지형과판도의결과라고볼수있겠죠. 이런상황에서우리는이엄청난열세를타개할방법을모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상: 지금의정치문화풍토가조직도돈도없는 여성들에게는지역구출마에또다른장벽이라고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공영제가안착되고있어서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져 간다고 봅니다. 우리여성들도여성으로서한국정치에대한 소신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도전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정당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여성 정치인들을 육성하고도전할수있는여건들을만들어내는것은당연한거구요.

김경: 비례대표로당선된여성들이다음선거에는지역구로적극적인참여를하는 것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거공영제가완전히실현되고법정비용도현재보다좀더낮아져야하겠죠.

김경애(동덕여자대학 여성학과 교수)

김상: 그렇죠. 앞으로 여성운동은 정치제도 관련해서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 50%를 지켜내는것도 중요합니다. 경선제, 정당민주화부분도요. 경선제가정당민주화에효과적인방법인지, 보완할 수있는 제도는 없는지, 그리고비례대표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압력행사를해야 한다고봅니다.
나름대로상상을해본다면, 전체의석수가300석이라고한다면비례대표수가 1/3인 100석 정도로 늘어나고-그래야 사회적 소외계층, 여성,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진출이 늘어날테니까요-나머지 지역구 의석수 200석은 중선거구제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상당히많이바뀔것이라고봅니다.
정당정치가뿌리내리고, 그렇게되면진보정당과여성들의참여가더욱 확대될테니까요. (모두웃음)

2006년 지방자치 선거도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김경: 그럼, 이어서곧다가올2006년지방의회선거에대해서의견을나눴으면합니다. 2006년이면첫지방자치선거가95년도였으니10년이지난거네요. 그동안중앙정치에비하면지방정치는답보상태입니다. 기초의원에서는2.2%, 광역의원에서는 9.2%로여성의원들의참여가아주저조하죠. 이것역시17대지역구의원으로여성이 10명뿐이당선되지않았다는것과 같은 맥락으로보이고, 또한정당 문화와연결되는부분이있다고봅니다. 기초에서실질적인정당공천은없지만결국내천으로진행되고있잖아요.

김상: 네, 지방자치선거에있어서도제도개선운동이중요하고빨리시작되어야합니다. 광역의비례대표의석수를현재의10%에서대폭확대해야됩니다. 그리고광역보다기초의원에서여성의비율이훨씬저조한이유는기초의원에서는비례대표제가없기때문이거든요. 우선정당공천이아니라서강제할수있는집단이없습니다. 그래서지난지방자치선거때여성단체에서주장했던것이남녀동수공천제였습니다. 이번에도제도개선투쟁으로제기하려고합니다.
사실, 지방분권화가진행되는상황에서지역운동과지방정치는더더욱중요해지고있고, 이런지역정치에여성들의참여가훨씬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공감대는중앙정치보다훨씬 높습니다. 여성들의정치 참여도풀뿌리

정치에서부터시작되어야하겠죠. 이를통해서여성들이기초부터정치적으로훈련되고전문성을쌓아간다면, 기본부터정치세력화가이루어진다고볼수있겠죠. 따라서, 2006년지방의회선거를대비한여성운동계의노력이더많이요구됩니다.

김경: 그렇죠. 지방정치에서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중앙정치로 가는 것도 타당하겠죠. 이제 불과 2년뿐이 남지 않았으니 준비를 시작해서논의를숙성시켜야겠군요.

새로운 정치의 전환점을 기대하며,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긴호흡으로! 생명력과 창의력의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모습으로!

김상: 그럼, 자연스럽게앞으로의운동의과제에대해서얘기를해보죠.
17대총선결과가정치권이어느정도물갈이, 판갈이가되고, 진보정당이원내에진출하게되면서우스개소리로앞으로시민사회단체 뭐할거냐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권력감시 운동, 권익 주창운동, 대안 사회 제시 운동 등을 하면서, 한편으로준정당역할을수행해온것이사실이거든요.

김경: 우리나라처럼시민운동이활발한나라도없을겁니다. 일반시민들의의식과지향점은높은반면, 정치권은너무취약했기 때문에그간극을좁히는것으로시민사회단체가역할을해왔던것이죠. 그런데우리나라정치권이제역할을수행하게된다면시민사회단체의위상도변화되어야겠죠.

김상: 그동안은민주화등의거시적인사안들에집중되었다면, 이제는세분화되고실질적인부분에있어서실천과변화를중요시할 때입니다. 정치에비해서 운동은 긴호흡을갖고, 현실보다는 이상을추구하면서대안 사회를제시하는것이지요. 이제, 우리가원하는사회와가치를선명하게드러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그것을제시하고걸맞은문화로바꾸는운동, 그래서대중, 지역, 풀뿌리운동이더욱더중요해지고큰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경: 그렇겠죠. 이제는생활속의정치로운동이발전되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민우회가지역여성운동을하고있는것은상당히큰장점입니다. 또, 사이버시대에적합한운동방법들을개발하는것과지난촛불시위에서보여줬듯이시민들이즐겁게참여할수있는운동방식들을마련하는것또한운동단체들의중요한과제죠.

김상: 그렇죠. 여성운동에있어서도여성해방적가치를제기하고그런문화를만들고, 그렇게"살아버리는" 운동들이필요합니다. (웃음) 이제여성운동도더많이다양해져야합니다. 여성적인대안가치들을제시하고문화운동을벌이는거죠. 사실진보적운동이라는것이좀딱딱하잖아요. 생명력과창의력이부족하죠. 여성해방운동은그런것이아닌데말이죠.

김경: 그러나, 진보정당이원내에진출했다고는하지만아직10석뿐이되지않고, 그들이아무리진보적인정책을제시한다고하더라도, 의회활동은숫자의정치고상임위원중심이기때문에정책을입안시키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기존의시민사회단체의역할들은아직까지유의미하다고봅니다.

김상: 한편으로는걱정되는것이있습니다. 여성운동계에서제안했던많은의제들을제도권에서받아들이고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경우도그렇죠. 이런 요구들이 수용되었을 때, 가족상담, 성상담, 성매매관련 상담, 쉼터등의 관련서비스사업들이확대되고, 결국이것은민관협력체계로이루어질것입니다.
이때, 여성운동계가이사업에어떻게결합할것인가가문제가되겠죠. 현재는이런수요를담보할수있는곳이많지않기 때문에여성단체들이이런서비스사업들을적극수용하다보면서비스조직으로바뀔수있고, 그렇게되면대안제시운동 부분이취약해지는것은당연한결과겠죠.
또한, 의제개발에있어서도제도권은정보취합, 정리, 대안마련에있어서자금과인력이충분한데반해, 상대적으로단체들은의제개발이나 새로운생각에대한 욕구는 높으나 투자할수있는 시간, 인력, 돈이취약하기때문에중요한고민지점입니다. 이것을해결해나가는것도여성운동단체의중요한과제라고생각합니다.

김경: 하지만제도화되었다고모두해결되고있다고는볼수없죠. 사회, 가정, 개인의생활속에서의실질적민주화, 실질적성평등문제는해결할것이아직도많지않습니까. 그래서몇년전에민우회에서했던‘ 나여기-나의여성차별드러내기 ’캠페인이나‘ 명절문화바꾸기캠페인 ’같은활동들이더욱중요해지고, 그활동내용이더넓고깊어져야한다고봅니다.

김상: 네, 성평등한문화를만들어내는것은제도로서는한계가있죠. 이런문화를바꿔가는것이여성운동에있어서는아주중요한 부분이죠. 민우회에서 현재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문제나다양한가족문제를제기하는것은선진적인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새로운가치들을지향하면서제도를보완, 수정해나가는것이우리여성운동단체의몫이겠죠. 이제는 좀더과감하게이슈와내용을주장하고나갈때라고생각합니다.

* 정말긴시간동안함께이야기나눠주신김상희, 김경애두분선생님께감사드립니다.

[2004 회원과 함께 하는 회원확대캠페인
1,000명의 마녀! 친구야! 빗자루타고 민우회 가자~ !]

마녀들의 달~ ~ ~팅!! 마음을 움직이는 여자들이 모였다!

인은숙

5월 3일(음력 3월 15일) 보름달의 정기를 받는마녀들이 광화문에모였다.
그녀들, 과연 무슨 연유에서일까? 우리는그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 이제 보슬보슬봄비 맞으며삼/삼/오/오모이기 시작하는그녀들을 따라가보자!
무언가 그녀들만의신비로운 매력에빠져들 것 같지않은가?

달팅에서 만난 사람들

자아~ 이제, 그녀들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아닌가?
자고로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벗겨지는 신비감(?)이 있더이다.
달팅의 본격적으로시작되기 직전 그녀들을 만나 보았다.
그녀들의 속마음을 알아볼까?
민우회 회원이면누구나공감할 수있는 그녀들의마음을 느껴보자.

말뼉따구 마녀
김현희(미디어운동본부 회원)

삶의 향기마녀 (왼쪽)
이주향(가족과성상담소 회원)

달리마녀 (왼쪽)
정경분(여성노동센터 회원)

보라마녀 (왼쪽)
주현수(사무처회원)

그녀, 마녀가 된 몇 가지 이유…

#. 말뼉따구 마녀

이 세상에 마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녀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두 번째는마녀라고 불리우는우리들이정상적인여자들로 불리우는그날을위해/ 가끔은현실사회에서마녀가되는것도재미있을것같아서…..

#. 삶의 향기 마녀

대구에서온한부모회원입니다. 회보만받아본지오래되었는데 회보를 받아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두가 봄의 기운이많이든떡을먹고힘내라고직접캔쑥으로떡을해서올라왔습니다. 남성우월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산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를알았기때문에…..

#. 달리 마녀

민우회는 기본적으로회원조직이잖아요. 회원이많아져야민우회 재정도 빵빵(충실)해지고, 충실해지면 민우회가 이것저것 사업도많이해서사회적인영향력이커질것이고, 그커진사회적영향력과함께민우회원의활동도더적극적이될수있고, 그래야 빨리빨리사회의 차별적인관행이나불평등한의식들도 없어질것이고, 머이런나름의순진하고도단순한도식에의해달리는평등마녀가되었습니다.

#. 보라마녀

지난3월에가입했습니다. 가입한지얼마안되었지만…솔직히 회비만내는명목상의회원인것같아서고민이많았는데…마녀캠페인소식을접하고서슴없이마녀신청을하였습니다.

친구에게 하고픈 이야기

#. 말뼉따구 마녀

“ 지금의세상과달리보고싶다면, 세상이달라보이고, 달라지길 바란다면마녀가되어라! ”

#. 삶의 향기 마녀

“ 자기 권리 주장인데 좀더 멀리보고 참여했음 좋겠다! ”라는 말을해주고싶습니다.

#. 보라마녀

민우회에가입한이유는여성문제와사회문제에관심이많고저와 같은관심을갖은사람들과함께하고싶기때문입니다. 제친구들에게도자신을위해시간을내어참여하길권유하고싶습니다.

평등 빗자루로 확 쓸어버리고 싶은 것들…

#. 말뼉따구 마녀

제일먼저는 미디어운동본부소속인 관계로미디어속에보여지는여성들의고정관념들을쓸어버리고싶고, 전직직장인으로노동자의입장에서보면여전히 직장내에서존재하는남녀불평등을확~!! 쓸어버리고싶습니다.

#. 삶의 향기 마녀

수학에서 도형은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다양합니다. 우리는그 다양함을인정합니다. 그러나다양한가족의형태나개개인의가치관에 대해선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자기의 눈에 맞추려 하는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것을 쓸어버리고싶습니다.

#. 달리마녀

이번캠페인에서평등의빗자루로취업인사승진에있어서의불평등, 호주제등을싹쓸어버리고싶습니다.

#. 보라마녀

평등의 빗자루로 남녀차별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확 쓸어버리고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

#. 말뻑따구 마녀

말뻑다구가 말뻑다구로보이지않고 정상으로보이는, 소위여성의소양이라말하는부드러움이나나긋나긋함이없어도동등하게대접받는그런세상이와야겠죠.

#. 삶의 향기 마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질시나멸시보다는 좀더 포근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돈 신분을 이야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합니다.

#. 달리마녀

이땅의모든여성들이태어날때는환호속에, 자랄때는격려속에, 자라서는 희망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일이온전히자신의의지에의해서술~술~술되는세상이었으면좋겠습니다.

#. 보라마녀

음, 평등빗자루로 정말 원하는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마법과도같은세상을만들고싶습니다.

·팅 속으로~

오~홋라!! 입구부터,,, 예사롭지않은가?
‘ 민우마녀 ’라니? 민우회와마녀는어떤관계란말인가?

그녀들의변신!!
아~ 이건또오무엇인가?
변신방이라니? 그녀들역시비범한면이있었다.
이유인즉슨, 그녀들변신하더이다. 참으로독특하게….
얼굴엔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머리엔 장식을하고팔과 허리에 예쁜끈도묶으니……. 참으로아름답더이다.
아주먼옛날,,,, 그리고도먼옛날,,,, 전설과역사속에서는‘ 마녀 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드랬다. 우리는 오늘 그녀들의 한편으로는 유치찬란하며, 한편으로는 귀여운 그녀들의 변신을바라보며,,,, 마음속으로외쳐보고또~오외쳐본다.
“ 마녀의 변신은 무죄여~~ 마녀에 대한 편견을 버려어어어어~~~“

변신 후 그녀들만의 프로그램!
“ 마녀들아, 노올자~~
- 마녀들!! 마법을걸어라! ”구호외치기~
본격적인 프로그램 캠페인 및웹사이트 소개, 재미난 회원확대비법 전수 등으로 시작되었다. 마녀들 각 조로 뭉치더니만 각 조의구호를목청 높여외치는것이아닌가? 자아그녀들의외침을들어보자!

1조 : 마법을 걸자! 737-5763
2조 : 달떴다, 마녀들아! 회원 맞으러 가자!
3조 : 되라되라되라 천명되라 비나리
4조 : 바라바라바라밤 마녀달려~!!
5조 : 눈이가요 눈이가 마녀에게 눈이가요 엄마마녀, 우주마녀, 마법에 걸려요. 언제든지 걸려봐. 어디서나 걸려봐 마법함께 걸려요.~ 마녀세생!(과자 CM송으로 불러보세요~)
6조 : 줄줄줄 달려달려 찾아 끌어 당겨
8조 : 양성양성양성, 평등평등평등, 양성평등야!

그 다음 프로그램은 “ 민우만만 꽈 “ 민우회를 맞춰봐 ”라는 게임. 게임후선물도있다한다.
1등, 2등에게는 민우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집과, 생리주기 팔찌를 한아름씩 안겨주더이다. 역시 적극적 참여와 불타는 경쟁심을 유도하는데 선물이 제격인 게다. 다들 초롱초롱한눈빛으로맞추는것이아닌가?

자~아 이젠 그녀들의 본심을 알 수 있는 “ 우린 마녀가 되어야해!! 마녀다짐~! ”
거의마지막프로그램인마녀수칙낭독이있었드랬다. 천명자마녀가수칙을선창하고모두같이낭독했다.

<유쾌한 마녀들의 생활습관!>
하나! 신나고유쾌한마음가짐으로민우회와함께할친구찾기!
두울!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민우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갖기!
세엣! 하루 한번씩친구, 동료들에게 회원가입권유 메일, 전화통화하기!
네엣! 어디선가~ 누군가의모임이생기면 마녀수첩, 회원가입서 챙기기!
다섯! 하루1회이상마녀사이트에접속, 나의이야기남기기!
여섯! 민우회희망이바로나임을잊지말기!

끝은 힘찬 시작이다!
자아~ 이제그녀들의잔치가서서히끝나간다.
그런데이게웬일이더냐? 축하공연으로동북여성민우회의스윙댄스팀이 “ 댄스~!! 댄스~!! 스윙댄스~ ~!!” 오~ 멋진 노래와 신

나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타고 즉석에서 여성노동센터 회원인 오성민, 이경숙님의 정말정말멋진스윙댄스까지….
끝은 무슨 끝 이제부터 시작인게야~~~!!!
식지 않는 저 열정으로 마녀들은 앞으로 2개월간 평등의 빗자루에 친구를 태우고 신나게 민우회로 날아 오리라~~!! 그리하여 저들을 “ 마음을 움직이는 여자‘ 마녀 ”라하는게다. 이제야비로소그녀들을알수있더이다. 마녀, 그녀들에게뭔가특별한것이있었드랬다.
자~ 친구야! 빗자루타고민우회가자!!
마음을움직이는그녀들과함께~~~
우리는알고있습니다.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우회가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

2004 회원과 함께하는 회원확대캠페인

“1,000명의 마녀! 친구야, 빗자루 타고 민우회 가자 ”에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웹싸이트: http://www.womenlink.or.kr/1000

[참가신청]
- **마녀전화: 02-737-5763**
- **마녀메일: friend87@womenlink.or.kr**
- **마녀팩스: 02-736-5766, 02-739-8871**

한국여성민우회는여성들의희망이고싶습니다.
희망을만들어가는길! 회원여러분이함께해주십시오.

인은숙 | 한국여성민우회사무처정보홍보팀간사.
재기발랄한뛰어난감각으로함께가는여성의통통튀는그맛을첨가하고있는그녀.
우리는그를아기곰이라고부른다.

‘ 가족 에 대한 단상 - 영화 바람난 가족을 보고

더 이상 진실 없이는 가족을 구성하지 말라?

권미혁

모름지기 가족은 남들이 보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
내부적으론 어떻게 상채기가 나 있어도 남들 앞에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연출하는 데 각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왜?
가족은 신성하니까. 천륜으로 맺어졌으니까.
또 얼마나 화목한 가족을 가졌는가가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니까.
이런 공리(公理?)에 토를 달고 나온 영화가 ‘ 바람난 가족 이다.

이영화에는한가족이나온다. 주인공인영작과호정부부. 영작의아버지(창근)와어머니(병한), 그리고영작의아들수인이그들이다. 영작과호정, 창근과병한은혼인으로맺어진부부다. 영작과그부모는혈족관계이며, 호정에게시부모는인척이된다. 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 관습과법이인정하며피로맺어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런데영화는이들가족을무참히해체시켜버린다.
사회적으로잘나가는변호사인영작은젊은여자와바람을피고있다. 시어머니역시초등학교동창과사귀고있으며호정은어린학생에게서유혹을받는다. 이런중에6.25 때가족을잃은아픈기억을평생술로달래던아버지가간암으로죽으면서이들가족은급격히와해된다.

언론에서다룬그대로조금선정적으로표현하자면, 이들가족이이토록갈갈이찢어진이유는아들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바람이났기때문이다. 그러나조금더들여다보면관객은감독의의미심장한코드를영화속에서만나게된다.

창근이죽은후영작의어머니병한은, 아들에게남편과의15년의결혼생활이얼마나무의미했는지를당당히밝히며재혼해버린다. 호정은영작이결혼이라는제도에들어오자자신을여자가아닌중성으로바라본다고여기며호기심으로자기에게추파를던지는옆집고등학생의유혹을더현실적으로받아들인다.
한마디로각자가자신의감정과삶에솔직하다보니그결과로가정이해체된다는것이다. 뒤늦게호정에게용서를구하는영작이호정에게거부당하는것도그동안진실이쌓이지않았기때문이다.

한편이영화에서가장아름다운관계는호정과아들수인의사이이다. 수인은호정이배아파난아들이아니라그야말로‘ 가슴이아파난 ’입양아이다. 그러나수인과호정은다른어떤사람보다많이같이있고많이대화하고또서로에게솔직하다. 수인이왜굳이입양사실을나에게밝혔느냐고 묻는대목에서호정은다음과같이대답한다. "모두가알고있는데너만모르면불공평하기때문이야."

그러나수인은영작이자신의교통사고를돈으로무마하는과정에서앙심을품은사람에의해죽임을당하게되고…
아들이죽은후절망한호정이비오는산을오르며"아들미안해, 엄마가정말로미안해…"라고중얼거리는장면은비록피로맺어지진않았지만가장사랑했던한가족에대한애절한사랑이절절히묻어나와보는사람을숙연하게한다.
이런대목들이어우러지면서과연가족이진정가족다우려면어떠해야하는가하는물음으로이영화는내게다가왔다.

마음한켠엔혹시이영화가현실을너무과장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없던것도아니었다. 그런데영화보다더껍데기뿐인채살아가는가족이주변에의외로많다는후배와친구들의이야기를들으며오늘날혈연이나관습의인정이얼마나개인을가족이라는울타리로묶어주는역할을하는지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사실영화평을하려고‘ 바람난가족 을예로든것은아니다. 뿐만아니라나의이같은영화읽기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도많으리라.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은가족구성원이라는이유만으로무조건감싸거나용서하거나하지않는사람들이늘고있다는사실을이영화가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아울러수인과호정의 관계처럼진실이통한다면피붙이가아니어도의무와책임, 사랑을퍼붓는가족이될수있다는점도.

그런의미에서"신경끄고니인생이나똑바로살라"는진리를깨닫지못할때우리는호정이영작에게그랬듯언제든지가족구성원으로부터아웃당할수있다면일종의협박일까?
가족이되기위해노력해야하는시대가온것이다.

권미혁 | 「함께가는여성」편집위원,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운영위원

봄날, 가족들의 추억
- 2004 춘천여성문화제일지

손영옥 · 박미숙

지난해 처음 시작한 여성문화제는 ‘ 여성운동의 대중화 와 ‘ 여성주의문화알리기 를목적으로한다. 양성평등한민주사회를만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가깝게 알릴 수 있는‘ 부드러운 ’행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서울과 달리 지역은 우리의 활동에 대해 ‘ 과격하다, 너무 앞서간다 ’라는 인식이 많고, 민우회를 모르는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다.‘ 운동 ’은 좀 익숙해도‘ 문화 ’는그다지익숙하지않은것이우리의현실이니까.

왜 “ 가족, 가족들 인가

여성문화제 첫해였던 작년,「2003 춘천여성문화제 -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에서는‘ 문화제 ’라는 형식을 만들기에 좀더 많은힘을쏟다보니, 우리의 주제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에 미숙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된 2004년 여성문화제에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가족 ’이라는모티브는호주제폐지, 건강가정기본법 등 일련의 사회적인 움직임과 관심도에서 찾게 되었다. 빠른 변화를 겪고있는우리사회에서 가족또한구성과내용이 급격하게바뀌어 가고있고, 이것에대해일종의위기의식이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현상이 ‘ 가족해체 ’가 아닌‘ 다양한 가족의 출현 ’이라는 것을 여성문화제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가족, 가족들 ’이라는주제를선정하였다. 그런데, 이런생각을어떻게여성문화제안에서구체적으로표현할수있을것인가?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 다양한 가족에 대해 고민해봐~ 하면서 우기면될것인가?

몇차례의기획회의와고민끝에‘ 가족사진전, 설치미술작품 - 내가 생각하는 가족, 열린가족 · 열린마당 공연 ’을 통해 다양한가족의모습을구체화하기로했다.

올해는 전시와 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전야제까지 포함한 이틀행사를하게되면서규모가커진것이조금은버거웠다. 게다가 문화제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귀해졌다. 5월1일에는 행사가 어찌나 많던지정말원망스러웠다. 운동회에, 각종모임에, 유치원 행사에, 회원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전야제 이틀 전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연결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구세주처럼 생각되었다. 사람들이 없어서 썰렁한 행사장을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다. 이렇게긴장과불안속에문화제는다가왔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문화제의 시작은 사진전이다. 춘천사진작가협회의 가족사진과 민우회원의 가족사진을 나란히 걸어놓았다. 전문작가들의 사진에 비해 민우회원들의 사진은 좀 어설펐지만, 60년대의 전통적인 가족에서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모습까지 실감있게 담아낸 사진은 역시 민우회원들의 것이었다. 테이프 Cutting이라는멋진세레모니를하기엔쑥스러울 만치 전시실은 휑하니 조용했다. 큰 기대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끼리웃고있는어색한사진을한장남기는것으로만족할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영화선정에서부터 오랜 시간을끌어온 영화상영장소. 마을한 가운데휑하니 자리잡은 ‘ 시네마천국 ’에 나오는 극장처럼 얼핏 보면 허름하기까지 하지만, 작년보다는 시스템이 많이 보강되어 빔프로젝터를 연결하니 스크린도 그럴 듯하고 음향 상태도 문제없어 보였다. 그런데 사람들 속속 도착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스크린은 움직이지않는다. 30분이지나도요지부동. 급기야연장통을들고 근처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 천장에 달린 빔프로젝터를 뜯으러 이우진 회원과 함께 달려가 봤지만 케이블을 끊을 수는 없었다. 용케 구했다는전갈을받고다시예술마당으로 차를 돌려 돌아올 때는 연장통을들고올 힘조차 남아있지않았다. 50분이 지나서야 겨우 영화가 시작되었다.‘ 장애여성 공감 ’의 공동체 가족이야기인「거북이 시스터즈」, 동성애자인 동생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언니를 중심으로 겪는 갈등과 이해의가족이야기를다룬「인도식팝콘」에이어올해여성영화제상영작인류미례감독의「엄마」가상영되었다. 이작품들은 리얼한삶의 한가운데서‘ 가족, 가족들 ’이라는 문화제주제를 진지하게생각해볼수있는소중한시간을선사해주었다.

담담, 하지만 씁쓸함

다음날 아침, 작은 봄내마당에 트럭이 들어오고 짐들이 내려진다. 윗마당 뜰에는 ‘ 내가 생각하는 가족 ’이라는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전통적인 가족틀 안에 갇힌 개인의 욕망과 삶의 모습을 표현한 ‘ 가마솥과 컵라면 ’, 수직적인 부모자식 관계의 전통적인 가족 의미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담은 지구본모양의‘ 가족네트워크 ’, 자신이사랑하는것이라면컴퓨터든, 스포츠든가족이 될수있다는‘ 사랑이가족이다 ’, 다양한가족의모습을담아본‘ 한지조각보 ’, 울퉁불퉁‘ 돌멩이가족 ’,‘ 퀼트가방가족 ’,‘ 허스토리 ’,‘ 가족나무 등작품을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가족 ’ 대하여 가장 진지하게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작품들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뭐그리심각한꼬투리가될까싶다.

토요일 3시. 문화제의 하이라이트 - 문화 공연이 곧 시작될 텐데 마당은 한가하다. 관객이 많든 적든, 관객이 흥이 돋든 말든또랑광대김명자씨의‘ 슈퍼댁씨름출정기 ’는펼쳐졌다. 김치 냉장고를 타려는 슈퍼댁의 의지는 충천했지만 결국 모래판에 사정없이 내동댕이쳐지듯 우리의 기대도 살며시 자취를 감추어 버린 상황이었다. 작년보다 준비기간도 길었고, 이것저것꼼꼼하게챙겼건만…. 만만한게아닌게로군.

울타리를 넘어

문화제는 끝났다. 성황리에 치러진 행사가 아니라 아쉬움은 남지만, 준비기간 동안 TV를 비롯한 라디오, 신문 등 언론사가 보인 관심은 급변하는우리 사회에가족을주제로한 화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회원과 시민들의 낮은 참여가 문화제의 홍보나 행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아직도 가족이야기가 여론화되기를 꺼려하는 관습과 닫힌 의식 때문은 아닌지 두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족 문제는 그동안사적인 것으로 방치되었고 그로인해 가족의 해체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없어왔던 게 사실이다.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제도로 인해 소외되고 불행해지는 가족들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우리의 양면인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좀더 열려있기를 바라며 평가를 마무리한다.

※ 이글은손영옥(춘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님과박미옥(춘천여성민우회공동대표)님의공동작품입니다. 많은어려움속에서새로운운동의도전을멋지게해내신두분과춘천여성민우회분들께파이팅을외쳐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다시 보기

조은희

가족에 대한 기본철학의 빈곤

최근 들어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공론화 되면서이제 사적영역으로만생각하였던가족이 공적영역으로도 이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러한 하나의 결과물로보여 진다. 그러나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기대를 갖기보다는 비판적으로보는시각이더 많이존재하고 있다. 이는 법제정과정에 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통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온 결과이며,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비판을 피할수없는조항들이종종눈에띤다.

이법은 국가의 책무로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말하면서도그러한것들의혜택을누릴수있는가족은혹은 가족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관에 머물러 있다. 건강가정, 가정유지, 가족지지, 가족의중요성, 가정해체예방, 이혼예방, 혼인출산의중요성등이러한용어가사용되고있는규정의내용에서는가족이데올로기를유도하려는의도가보인다. 국가가국민들에게 하나의이념을강요, 계도, 교육하여사회를조정하려는의도는옳지않다. 결국이법은과거지향적가족관에대한향수를아직 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것은이법의근간이되는가족에대한기본철학과이념의빈곤에서비롯된것이라고생각한다. 빈곤한 이념과철학은계속적으로빈곤한가족정책으로이어질것이며이것은국민적합의를도출해내기어려울것이다.

문제시되는 조항에 대한 하나의 예

문제될수있는조항을하나예로든다면, 제4조2항의“ 모든국민이가정의중요성을인식하여야한다 ”와제8조는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의 규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한가이다. 혼인을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며(행복추구권 - 헌법 제10조),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산에 대한 것 역시 개인의자유로운선택의문제이다. 혼인제도에대한가치는오랜역사를통하여정착되었으나혼인제도이외에도사람들의함께사는 삶의 형태는 보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혼외적인 삶의 형태(사실혼, 남녀동거, 동성간 동거 등)는 새로운 생활공동체로서 이미사회적으로용인,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혼인의 중요성을강조하는 것은시대에 역행하는것이며, 혼인과출산이중요한것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인하지않은 혹은출산하지 않는 소수자들에대한불평등(불이익)한효과를초래할수있다. 그러므로‘ 혼인과출산의중요성 ’이라는가치기준설정을모든국민에게규범화시키는것은위험한태도이며, 헌법이보장한자유권에대한침해가될수있다.[1]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하위 법규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헌법 제36조[2]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헌법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이에서 소외되지 않고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단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모든가족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 차별 받지 않고 국가의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어야한다.

또한 문제시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종류를 2항에서 9호까지 나열하고 있으며, 또한 4항에서는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등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가정에대하여 적극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동법 제5항에는 제2항과 4항의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다고규정함으로써국가의가족복지를위한세부적사항은기존관계법률에유보하고있다. 그렇다면결국가족지원에관한세부사항은기존관계법률의규정에의한다는것인데, 이법의지지자들이주장하는기존의체계와는 다른가정에대한통합적복지서비스의제공은무엇을의미하는지이해하기힘들다.

결론적으로건강가정기본법은가족실태조사나전담인력확보등을통해가족의문제점을예방또는해소방안을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철학과 사상, 방향, 전담인력의 자격에 대한검증, 관련법률과의연구를통한법률적체계의통합, 기존의인력그리고시설에대한조화로운포섭등, 건강가정기본법의규정내용에서지적되는문제점들은다시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법의 제정에 있어서

급변하고다변화하는현대사회에서두드러지는현상하나는역시, 다수의그리고다양한법들이제정된다는것이다. 소위현대사회는‘ 법의홍수 ’라고할수있을만큼법률의수는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도이러한현상은계속될것이다. 물론법의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법 제정의 신중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의 과도한 제정으로 관계법을 통합적으로보기어려운상황에처할 수있다는단점이있다. 또한 모든 법이다 실효성이있고 옳은것은아니다. 그러나일단 만들어진법은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법으로서의 구속력을갖는다. 이러한 법이사회에끼치는영향또한 클 수 있다는것을우리는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조은희 | 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1) 조은희, 건강가족있다/없다, 한국여성민우회토론회자료집, 2004, 3. 참조.
2)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문제 있다!!!

유경희

요즈음처럼가족이화두가된적이없었다.
우리사회에서 가족은당위적인 존재였고, 이슈가 되기에는너무나 근원적인 주제였다. 그러던가족이 문제로인식되었으며, 이제는국가가나서서대책을마련하겠다고아우성이다. 가족이문제가된것은최근의혼인감소、출산율감소、이혼율증가라는사회현상과무관하지않고, 더욱위기감을느끼게한것은가족과관련한통계수치들이다.
특히이혼과관련한통계는더그렇다.
지난해‘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 는 보고(2002년 이혼율 47.4% 결혼대비 이혼율 방식: 현도사회복지대학 연구보고서)와‘ 조(組)이혼율 3.0’(해당년도이혼건수/해당년도총인구, 인구 1000명당6명이혼: 통계청자료), 이혼율세계2위 3위라는보도는많은사람들을놀라게하였고, 최근법원행정처의이혼율산정(혼인경력자의총혼인수/ 이혼경력자의총이혼수: 04년 1월말기준이혼율 9.3%)에대한문제제기가있으면서통계산정에대한논란이분분했다.
이러한통계수치가 가져오는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며아직까지가부장적구조가지배하는 우리사회정서로비추어볼때, 가정해체라는위기감을갖게하기에충분했다.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말 가정해체를 막고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의 유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명시함과 더불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무부에서도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를 위한 민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는 그 전제가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건강가족으로 상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이혼가족은 해체된 가정이 되는 것이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된다. 바로 이런 맥락의 접근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모든 국민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의무적 상담을 받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인증)서를 받아야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이혼여부를 결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발상의 바탕에는 인내심도 부족하고 자녀도 몰라라하는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한 사고가 깔려 있다.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주범인 이혼을 막기 위하여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의 기능과 유지를 가족에게만 맡겨 두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책임으로 인식한 면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혼인과 출산의 문제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나 이혼 등의 현실을 가정해체로 단정짓고 국가가 개입하여 방지하겠다는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는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 가족구성원들의 가치관,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자유권, 선택권에 위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혼 직전의 의무 상담은 가능하지 않다

이혼 전 상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의 막다른 지점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의 의무적인 몇 회의 상담이 가지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며,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년간 여성상담을 해온 현장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혼 결정은 아이들을, 이혼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생각해서 내린 결과이다. 생각 없이 성급하게, 또는 자기만을 생각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결코 인내심이 없는,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려는 힘든 선택의 결과임도 알아야 한다.
실제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은 법원의 이혼 전 조정이나 화해 등의 제도를 이용하거나 각 상담기관에서의 자발적인 상담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를 통한 강제적인 접근은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견고한 가부장적인 틀, 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경우 이혼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의 기본단위로써의 정상가족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 전 강제상담으로 이혼을 막으려는 것은 더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혼 전 상담을 맡게 될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도 개인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제 3자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가라는 생각에 미치면 혼란스러워진다.

이혼상담은 이혼직전의 의무적 상담으로 가능하지 않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결혼 이전 · 전 결혼 과정내의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이다. 평등한 부부 · 민주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이 상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용은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중한 선택을 돕는 것이어야 함과 동시에 이혼과정에서의 현명한 대응, 이혼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이혼 후의 부부관계, 자녀문제에의 대응, 사회 · 심리적 적응 및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혼관련 상담은 이혼 후의 가족이 심리적,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사회의 당당한 가족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혼은 더 이상 가족의 해체가 아니다.
또 다른 의미의 가족으로 재구조화하는 의지이며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선택권,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라는 단편적인 대응책보다는 가족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그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개별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경희 |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소장몸이아파도교육이나강의만시작되면생기발랄해지는그녀. 그래서상담소에서는그녀를 ‘ 생기’라부른다.

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나혜석

강도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수많은(때로는 모순된) 믿음들을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인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는 나름의 집단적 신념들을 갖고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라든가 “ 여자는 도를 깨칠 수 없다 ” “ 여자는 남자보다 수학이나 과학적 재능이 뒤떨어진다 ” 같은 믿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물론 이 같은 집단적 신념들은 절대 진리가 결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들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끈질기고 교묘하게 등장하는 신념들 중 많은 것들이 “ 여자를 깎아 내리는 신념들 ”이다. 이런 가변적 가치들 때문에 고통받다 살다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휴우~~ 한숨이 절로 난다.

그녀, 나혜석!

여전히 호주제가 기세등등한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가벼운 풍문과 무책임한 농담 속에서만 떠도는 여자들이 있다.“ 나혜석! ”그녀도 그런 여자들 중의 하나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여류!)화가였고, 연애 대장이고, 일본 유학까지 한‘ 신여성 ’이었던 그녀. 1920년대에 유럽과 미국을 여행했고, 돌아와서는‘ 이혼 고백장 ’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스캔들 메이커! 하지만 이혼 후 말년에는 행려병자로 비참(?)하게 삶을마감했노라고,‘ 그것봐! 너무잘난척하는여자는팔자가세다 ’고풍문처럼떠도는여자.

‘ 아아! 어쩌자고 이 여자는이렇게 용감했을까. ’

나 또한 나혜석이란 여자의 삶은‘ 너무잘난 척하는여자 ’의 화려하고 비장한삶이려니 여겼을 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자로 사는 게 참 고단하다고 여기던 어느 시절에 우연히 서점에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이상경 지음, 한길사)란 책이 유독 눈에 띄었다. (어쩌면 당시 나에게는‘ 내가 제대로 인간대접을못받고살고있지않나 ’하는희미한느낌이있지않았을까?)

순전히 제목 때문에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는 끝내 눈물 한방울이 떨어졌다.‘ 아아! 어쩌자고 이 여자는 이렇게 용감했을까. ’내 느낌은 딱 그거였다. 철옹성 같이 완고한 가부장제 사회,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철저한 남성중심 사회에서‘ 없는 길을 찾으려 ’,‘ 없는 희망 ’을 만들고자 고투한 여자, 나혜석! 감탄을 금할수없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풍문처럼 그렇게 부박한 연애대장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진 여자였다. 물론 때로 영악하고 타산적인 태도(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태도)도보이지만말이다.

그런데나혜석이살았던시대와지금내가사는 사회는얼마나달라졌을까. 근대의식이랄수있는‘ 자유와평등 ’을처음으로자각한신여성들이부딪쳐괴로워했던문제들이지금현대를사는여자인나에게도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아닌지 - - . 겉모양은많이 변한듯해도사실 본질적인부분에서는변치않고 남아있는뭔가가있는것은아닌지 - - - .

그녀, 인형이아닌 인간으로 살고싶었다.

그녀의 그림은 잘 모르니 논외로 쳐도 남아 있는 글들(소설, 시, 논설 등등. 그녀는 문학에도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었다)을 보면 그녀가 억압당하는 여자로서의 체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름대로 뛰어난 작가였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나혜석의 초기 소설인 <경희>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자다. 여자라는 것보다 사람이다 ’아이를 낳고 발표한 <모(母)된 감상기>에서는“ 자식이란 어미 살점을 떼어 가는 악마 ”라며 어미되기의 두려움과 고통을 파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페미니즘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극구 찬양하는‘ 모성 ’이 어쩌면 강요된

사회적가치일수도 있음을나름대로통찰한 것일까? 지금도한편에서는너무나당연시되는‘ 모성의미덕 꽈‘ 신비화된모성신화 틀자신의경험을근거로조목조목부정하고있으니말이다.

자기를 계발하고 발휘하는 절정의 시기(20대, 30대)에 운명처럼 맞이하는 임신은 여성에게 어쨌든 기쁨이자 제약이되는경우가많다. 이문제는 1920년나혜석이후공적영역으로 나와 자기일을하고자하는여성들이 숱하게부딪치는문제이고, 일하고자하는대다수여성들에게지금도여전히곤혹스런문제이다.

다른글들도굉장히파격적이다. 여성의독자적개성을절대용납하지않는 완고한사회를비판한「이혼고백서」,「신생활에 들면서」란 에세이에서는“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다. 정조는 취미이고 취향이다 ”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그 시대(1930년대)에 여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감히 이야기하다니 이 얼마나 대담한 여자인가. 지금도일부에서는여자의순결을들먹이고여성의주체적인성적욕망을이야기하면껄끄러워하는데- - -

그녀는 정말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구나. 사회적 관습을 무시할 수 있는 크나큰 용기가 있었구나. 그녀는 자신을 뜨겁게사랑했구나. 인형이아닌인간으로살고싶었구나.

비록 이혼 후 사회와 가족의 무자비한 냉대와 자신과의 피투성이 싸움 끝에 텅 빈 길에서 삶을 마감했으나 나는 그녀를 존경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여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투성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사회를간절히꿈꾼다.

강도은 | 두딸과함께시골에서산다. 생태주의자, 페미니스트, 영성의진화를꿈구는자로살고픈바램을갖고있다. 가끔은글도쓰고, 텃밭을가꾸어먹을채소와식물을기르는일을큰기쁨으로여기면서살고있다.

15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이야기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준 생협-

여성민우회 생협이 2004년으로 15주년이 되었다.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3일에는 15주년 기념 생산자 · 소비자 한마당을 서초구청 주차장에서 개최하고, 연말에는 자료집이 나올 예정이다. 이 모든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15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각 지역의 조합원들로구성되어있다. 오늘은 15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회의자리를틈타여성민우회생협의15년 역사와의미를되새겨보고자 한다.

참석자: 박영숙(생협 이사장), 곽명옥(단비), 김희정(동북여성민우회), 김소앵(남부지역모임), 김동엽(남서여성민우회), 박임성아(생협 사무국)
글정리: 박임성아

박영숙: 15주년을 맞이해서 옛날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민우회생협을하며자신의생활이달라진점에대해이야기해보죠.

김동엽: 27살에 민우회에 들어와 지금 42살이니까 민우회에서의나이가생협과같은나이 15살이예요. 89년에사무직여성운동으로 민우회와 인연을 맺었죠. 그때는 생협에 대해선 별로관심없었어요. 오로지일터에서의여성의권리, 여성김동엽이 당당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92년인가 93년부터 생협을 이용하게 되면서 생활을 돌아보게되었고, 어떻게사는것이사람답게잘살게되는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여성운동을 하며 만난 선배들은 혁명적, 투쟁적, 단순간의 변화를 꿈꾸었는데 생협운동은 생활 속에서스폰지에물스며들듯자연스럽게진행되는것같아요.

곽명옥: 생협을 돌아보면 신명났었던 기억이 맨 처음 떠올라요. 30대 때 너무 좋아서 눈만 뜨면 생협을 이야기하고 뛰어나오던때가 생각나요. 맨 처음생협을 만들면서 사랑방에 모여 많은 주제들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생협을 몰랐다면아마 환경이나 안전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뉴스로만 접하는, 나와는 먼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성민우회 생협은 ‘ 나를새로태어나게해준생협 ’이예요.

김희정: 학생 시절 처음 민우회에 왔을 때 생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의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영역으로알고있던 것들이 여성운동 안에서 또 하나의 영역으로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철음식이 뭔지 알게됐어요.(웃음)

이전에는 생협을 설명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가뭘 몰라서… 다 사기다, 속고 있다, 내가 진짜 농사짓는 사람을 아는데 그사람이눈물로이야기하더라. 농약많이 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수도없이들었어요. 그런데그동안의생협운동이 정말단기간에영향력을높인것같아요. 지역운동, 여성운동, 생협운동이조화를이루는것을보면신비롭고…하여간살아 있는교과서예요.

김소앵: 저도 민우여성학교로 민우회와 연을 맺고 그때는‘ 생협 필요 없다 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생협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협을 소개하게 되더군요. 생협활동을 하면서 정말 부엌에서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나같은 평범한 주부들에게 세상을 보여줬어요. 요즘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것같아안타까워요. 그게바로고립이거든요. 같은부엌일을하더라도사회속에서자신을보고, 자신이하는일을생각하는것이중요해요.
아유~ 옛날에는요, 생협 안 하는 사람들하곤 놀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생협 안 하는 사람들하고도 놀아요.(웃음)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긴 거 같아요. 이젠 운동이라는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내 일상 속에 생협이자리잡은거예요. 생협안하는사람들하고놀다가그사람들이내생활을알게되고궁금해하면그때자연스럽게생협을 이야기하고그럼오히려생협을소개할려고애쓰던때보다더 잘이해하는것같아요.

박영숙: 이제까지 좋았던 일만 잔뜩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힘들었던일도이야기해볼까요?

곽명옥: 정말 생협운동은 폼 안나는 운동이죠. 하다못해 처음에는 동네에서 자판까지 벌였어요. 우리 집이 생협 사무실에서 제일 가깝다보니, 안 좋은 양파나 채소가 있으면 버리기 아까워서 골라내고 도려내서 동네에서 자판을 벌여 팔기도 했어요. 농사짓는 생산자가어느것 하나 버리기 아까운심정처럼 생협 생활재 어느 것 하나 버리기 싫었어요. 그건 어떤 사업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주인의식이죠. 그때는 하루가 끝나고 그날 일들을 돌아보면 눈물나는 때도 많았어요. 한번은 공동체봉사자였을때생활재받으러오라고전화했는데아무도안받는거예요. 그래서바리바리싸들고수영장앞으로가서 수영 끝나고 나오는 공동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렇게하면공동체조합원이주인의식이안생긴다고다른조합원활동가에게 야단도 맞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급하고 더 많이 생협을 이용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뛰어다녔지요. 가족들하고 갈등도 많았어요. 그래서 딴사람들 때문에 눈물흘리는거가족들이알까봐가족들한텐웃으면서신난다고만이야기했지요. 지금돌아보면눈물도아름다운추억이라고 그때고생했었던기억들이기쁨으로남아있어요. 한마디로말하면눈물나게기뻐요.

김희정: 동북지부에서처음매장을낼때‘ 매장추진위원회 를 만들었어요. 매장해야한다고발로뛰어다니는데사람들이무섭다고하더군요. 누구를매장하냐고.(웃음) 매장을내면서차라리 선거를 하지, 선거는 끝이라도 있지 매장은 끝이 없으니 더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두렵고 긴장했었는데… 매장을낼때, 돈이없어서냉장고며냉동고며다중고로구입했거든요. 그게 고장이라도 나면 밤중에 다 뛰어나와서 바리바리 싸들고가서 집 냉장고에집어넣고… 저는 매장 냈을 때 가가장기억에남아요.

곽명옥: 판두부할 때가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두부를 판으로 들여와 생협에서 잘라서 공급했거든요. 다자르고남은 으스러진두부가 제 몫이었죠. 그래서 으스러진 두부를 이용한 두부찜요리를 개발했어요. 요즘도 잘 해먹어요. 다른 집에 갈 때, 선물로 두부를 가져가거나 유정란 1판을 들고 간 적도 많아요. 그래도 정말 좋은 두부, 정말 좋은 유정란을 가져간다 생각하니 손이부끄럽지않았어요. 받는사람들도좋아하더라구요.

김소앵: 학교 앞에서 전단 돌리던 기억도 나네요. 우리 아이들은제가 여성민우회 생협 활동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다른 애들같으면창피하다고싫어하기도하련만우리아들은제가 학교 앞에서 전단을 돌리면 친구들 잔뜩 데리고 와서 우리엄마라고 자랑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자전거 뒤에 전단지 싣고 가서아파트에도돌리고했지요. 그러다가경비아저씨한테혼나기도하고…

김동엽: 전단지하니까 아픈 기억이 나네요. 교회 가서 전단지를돌리는데전부가하는말이‘ 운동한다고하더니야채가게하냐? 어디에차렸냐? 는거예요. 또거리시식회나가서실컷설명했더니“ 근데 아줌마, 이거팔아서 얼마남아요? 하면서, 매장활동가를마치슈퍼종업원처럼대할때가슴이아팠지요.

김소앵: 그런사람들도감싸안아야죠.

김동엽: 그럼요.

박영숙: 15년이 흘러오면서 생협운동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몇 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야 이용할 수 있던 여성민우회 생협 안에서도 개별조합원도 생기고, 매장도 생기는 변화가 있었고, 또 다른 생협도 많이 생겨났지요. 다른 생협과 비교해볼 때우리 생협만의 자랑스러운 점은 뭐라고생각하세요?

김동엽: 요즘 유기농매장이많이생겼잖아요, 처음엔걱정도많이했는데이젠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성녹색생협 관점에 맞춰서 다른 생협과 유기농매장에서 못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운동의 실천거리를 개발하고 지평을넓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성민우회 생협 조합원들은 자긍심이 높아요. 가족의 건강, 먹거리를 뛰어넘어 우리가콩나물 하나구입하는것이지역여성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 거기에 자신이 기여한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박영숙: 마지막으로 15주년 기념행사가 6월 13일로 다가왔는데 조합원에게 가장 자신있게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을 꼽아보세요.

김소앵: 뭐니뭐니해도생산자를직접만나볼수있다는거죠.

김동엽: 저는 대동놀이요. 생산자, 소비자, 남녀노소다 민우회생협한식구라는것을느끼고감동할수있는시간이될거예요.

김희정: 눈물없인볼수없는생협역사박물관도있어요.

박영숙: 우리의 이모든이야기가사실은6월 13일 15주년 기념행사에다녹아있다고말할수있지요. 그때꼭조합원들만나 뵙길 바라면서오늘이 자리는 여기서마감하지요. 1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여러분들앞으로더수고하세요.

여성민우회 생협 15주년 기념 생산자 · 소비자 한마당

모여라! 민우잔치 한마당

- **일시: 6월 13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서울시 서초구청 앞마당**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일자리나누기 프로그램

이주희

2003년 현재 8퍼센트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 구조적 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증가로 25 34세 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직 비율은 다른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임금 일자리의 공급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상시적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 대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외환위기 직전 6:4였던 신규채용 대 경력채용 비율은 이제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 고학력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IT분야의 연구기술직 등 고급인력은 계속 부족하여 2005년까지 약 18만 명의 전문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즉, 인력수급의 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청년기에 경험하는 실업은 이후 중장년기의 경력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실업은 여성에게…

실업은 그러나 아직도 여성에게 더 큰 문제이다. 보여지는 실업률 외에도 여성의 경우에는 구직 자체를 포기하여 실업률에 잡히지않는대규모의실망실업자가존재하고, 급속히진행된고령화와함께남성보다8년더긴 생애동안노후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48.9%로, 약 110만명의잠재된여성인력이존재한다. 대졸이상여성의경제활동 참가율은남성의 90퍼센트에현저히 못 미치는 62퍼센트에 불과하며, 25세부터 29세까지의 기혼여성의 72퍼센트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향후 여성인력의 고학력화가 더욱 뚜렷하게 진전될 예정이다.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된자료에따르면 2012년경에는 25 34세여성의경우대졸자비중이남성을추월할것으로예측된다.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인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작년에이어올해에도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취업 잠재력이 노동시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와여당은 총선 직후공공부문에서지난해보다 9만 명늘어난 37만 명에게일자리 주겠다는정책을 밝히고, 실제로올해1/4분기에 공기업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올해 목표인 36만 5천 개의 일자리 중 55퍼센트에 해당하는 19만4천개를 창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취업훈련이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나 분사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약속한 것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뿐인 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의 경우 기업체의 채용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항상가장불안정하고가장 임시적인 일자리부터 차지하기 마련이었다.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인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 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는정책은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

노동의 성별분업 강화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터이나, 궁극적으로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시정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 일자리 제공보다 근로경험과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여야 하며 경력직 채용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 중 여성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단기실적에매달리지말고중장기적관점에서종합적인대책을세워야한다는점에서교육, 보건, 환경, 복지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바람직한 대안이다. 유럽에서도 80년대 이후 실업률 상승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통해 이 문제를극복하려노력한바 있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의고용이우리나라에서차지하는비중은 스웨덴의 18.4퍼센트에훨씬못미치고, 이분야에서하위에속하는미국의 8.7퍼센트와도비교가안되는단2퍼센트에불과하다.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을 높여약 1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효과가 큰 야간 · 휴일보육, 영아 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노인복지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강사, 사회복지요원, 고용안정서비스담당자등공공서비스지원인력확충도추진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여성이 간병이나 보육 등 후기산업사회의 일자리에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가사노동의 확대판인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인 단시간 근로제이거나 기간제 임시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노동의 성별 분업과 성별 격리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한 스웨덴이 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높일수있었지만, 역시높은성별격리현상과낮은여성관리직비중을가진이유가바로여기에서발견된다.

일자리 창출이 진정 여성노동을 위한 효과를 낳으려면…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주 대상으로 창출되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반대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여성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더불어 가난의 여성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진정으로 여성노동을 위한 효과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저임금 비정규 임시직을 공공부문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포괄적인 정책적 시야와 대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과 연계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청년 실업이 낮은 국가의 대부분은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이 원활한 국가들이다. 대학 전공에 있어서 여성의 이공계 선택을장려하며, 여성의 다른일자리진출을 가로막는 차별철폐와 적극적조치가동시에 실시되어야할 것이다. 또한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되, 보육이나간병을‘ 여성 의일로만한정시키지말고, 자격을갖춘남성이진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추가적인정책들이동시적으로실행될때에만 여성의 지나친 직종격리 현상을 완화시키고, 다른 분야에의 고른 진출과 더불어,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저활용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가 제고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것이다.

이주희 | 한국노동연구원에서연구위원.
주요관심분야는산업사회학내여성노동, 비교노사관계, 국제정치경제학, 계급론이며,
최근에는여성에대한간접차별과적극적조치에대한연구를수행중이다.

이라크, 그리고 한국군의 파병

이대훈

최근 이라크 상황이 크게 변했다. 이라크인들의 전반적인 반미 정서와 점령에 대한 저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거의 민중봉기와 게릴라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군대에 대한 저항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미군의 군사행동도 도를 넘어 사실상의 전쟁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잘 알려진 조직적인 수감자 학대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봉쇄되었던 팔루자에서만 8백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죽은 사람의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명분 없는 전쟁에서 더러운 전쟁으로 전쟁 성격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철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점령정책은 총체적 파탄에 처하고 있다.

총체적 파탄에 처해진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

사실 이러한 상황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평화운동 측에서는 이라크 점령 초기부터“ 지금은 이라크인들이 꽃을던지겠지만곧 수류탄을던질것이다 ”라고 경고해왔다. 왜 그런지설명하기위해 많은인권단체들이지속적으로점령군의만행에대해서고발해왔으나단지주류언론에서보도하지않았을뿐이다.

민간단체들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민가를 수색하면서 어린이들을 코앞에 총구를 겨누면서 위협하거나 잠옷 차림의 여성을 침실에서 강제로 모욕적으로 끌고 나오는 등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밥먹듯이 했고, 거의 모든 군사작전이 현지인들에게모멸감을주며 전개되었다. 증거나 영장의원칙을저버린채 마구잡이로 체포된 사람의 가족들은 이들이 수감된 곳과 죄목을 알기 위해 몇 달에서 1년이 넘게 애간장을 태우며 수소문해야 했다. 또 면회를 하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며 몇 달을더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감된 장소라도 아는 사람은 그나마다행이어서현재미군에 의해‘ 실종 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한다. 체포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사람들, 원래 환자였던 사람들, 미군의학대를받았다고알려진수감자들의가족들은당사자의건강상태를알길이없어몇배의더큰고통을받아왔다.

사진 | 5월 12일, 여성단체주최미국의반인권적전쟁범죄규탄집회

이 외에도 미군기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파괴당한 가옥과 압류당한 토지, 수색 과정에서 압수증이나 반환기약 없이 마구잡이로 압수되는 사유 재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감자 처리 방식, 수색 또는 교전 시 미군의 무차별 난사, 집속탄 불발탄 열화우라늄탄 등 미군의 폭격에 따른 후유증을 방치하는 문제 등 이라크인들이 분개할 일이 너무나 많다.

주민의지지를 받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던 영국군조차 포로 학대를 저질렀으며 이 외에도 순찰중 이라크 경찰관을 오인 사격해사살한사건, 범죄자수색중자기 집에서저녁을먹던주부를사격해즉사시킨일, 친척집을방문했다가 자정이넘어 갑자기 들이닥친 점령군에게 복부에 총을 맞고죽은 청년, 영국군 관할 지역 길거리에서 놀다가불발집속폭탄이터져목숨을잃은 13세의아이의사건등범죄에서자유롭지않다.

뿐만아니다. 합법을가장한약탈까지벌어지고있다. 대다수국유기업이었던이라크의은행과기업, 광산이이제민영화의 이름으로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사실상 불하되고 있는 반면, 노조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행동은 전과 마찬가지로폭력적인탄압을받고있다. 이라크인들이 실업률 70%에 고통받고 있는 동안 핼리버튼사과 벡텔사와 같이부시행정부핵심의보호를받는회사들은이라크에서막대한돈을벌어들이고있다.

부당한 전쟁, 더러운 점령의 결과

이는 부당한 전쟁, 더러운 점령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상식이 있다면 이라크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서어떤생각과감정을키워왔는지충분히짐작할수있다. 일상적인모욕과실종, 학살과학대그리고무차별사격에의한살해와재산피해, 경제적약탈과권리의퇴보 - 이라크인들에게전쟁은결코끝나지않았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쟁 명분에 매달리거나 이라크인들이 이런 군사점령을 통한‘ 해방 ’을 환영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이라크내 다양한 세력 속에서 대미강경파가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점령군에 대한 군사적 저항에 강력한 이념과 지휘 체계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각된 알-사드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알-사드르가 계속 나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팔루자학살과수감자 학대, 그리고 성지파괴와같은폭발적사건때문에지휘체계와대중적동원력을갖춘대미항전은지금까지보아온산발적저항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시아 온건파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협력파의입지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며, 그 상호작용으로 미국은보다공세적인군사행동의유혹을받을것이다.

‘ 묻지마 ’식 한국정부의 파병추진

한국 정부의파병결정은이라크상황을결코강 건너불구경처럼대할수없게만들었다. 첫단추부터완전히잘못꿰었기 때문이다. 한국의이라크파병정책은세가지의고정된전제아래추진되어왔는데, 우선전쟁과점령의정당성보다는‘ 묻지마 대미협력 ’을내세웠고, 이에 따라미국이 부당하게 이라크를‘ 점령 ’하고있다는상황을 부인했으며, 이로부터“ 전후평화재건 ”이필요하고가능하다는허구적인목표를세워여기에집착하였다.

‘ 묻지마 ’에서 시작한 기이한 파병추진은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묻지마 ’로 이어졌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으로 불행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나 테러의 가능성은 어떠한지,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무장한 한국군의 주둔을‘ 점령 ’과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있는지 등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다. 대신 비전투병만 주둔한다고 했다가 결국 미국 영국과 함께 3대 점령군으로 변신하는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고, 시민사회와여론을청취하고반영하겠다고했다가오히려밀실에서모든결정을내려버렸다.

‘ 묻지마 ’에서 시작한 파병정책은 지금까지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지마 ’로 이어지고 있다. 만일 정부가 초기에‘ 안전 ’하다고 주장한 모술이나 키르쿠크에 예정대로 4월에 추가파병 했더라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술이나 키르쿠크로 파병을 추진했던 책임자와 조사단은 아직도 그 책임에 관한 한‘ 묻지마 ’이다. 파병정책의이같은막다른골목은 작년미국의이라크침략이후이라크상황에대한계속적인판단착오와상황왜곡을통해정책을추진했던현정부의사필귀정이다.
이제는 부시 행정부의 허황된‘ 전후 평화 ’라는 상황인식에 맹종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파병을 철회해야할시점이다.

이대훈 |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평화학연구교수

다이어트, 성형수술의 광풍에 저항하라!!

황은영

‘ 세계 다이어트 반대의 날 ’ 인 5월 6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가 주최한 ‘ 내 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 캠페인 ’참석 후 집에 돌아와 웹사이트를 보니 “ 동반자살 기도 여성, 모자 한 번 벗고 살아봤으면 ’이란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성형수술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동반자살을 하려다가 검거되었다는 내용인데, 2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수술 후 부작용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한다. 검거 후 이 여성은 “ 모자 벗는 게 소원이었는데. 얼굴 때문에 2년 동안 우울하게만 살았다, 정말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다. 맘 속으로 축하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무엇이 이 여성으로 하여금 외모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을까? 외모지상주의의 폐해가 우리사회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세계적으로 ‘ 다이어트 반대의 날 ’이 정해지고 캠페인을 벌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2004년 5월 6일 그곳에서는

‘ 세계 다이어트 반대의 날(INDD, International No Diet Day)’은 1992년 영국 반다이어트 운동가인 메리 에반스 영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사망한 여성들을 추모하고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다이어트 반대운동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매년5월6일을이날로 정하고 세계 12개국에서 캠페인을 벌여 왔는데, 이날 민우회로 신촌에서 ‘ 내몸의주인은나 - No 다이어트, No 성형 ’캠페인을벌였다. 작년부터민우회가 해온 INDD 캠페인은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것이라 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반가우면서도무척이나씁쓸했다.

유혹과 선택 그리고 죽음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목숨을 앗아가는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의 폐해를 고발한 퍼포먼스였다. ‘ 쭉쭉빵빵 몸매와 연예인얼굴 ’이 아닌여성이 외모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결혼시장에서 퇴물취급을 받고 절망하자 검은 옷을 입은 ‘ 성형, 다이어트 망령 ’이 “ 그 툭툭 튀어나온 뱃살을 집어넣어 그 납작가슴은 뭐야? 확대해! 째진 눈은 크게 만들어라. 주저앉은 코를 높여라. 그 네모난 얼굴은 뭐냐? 계란형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부추긴다. 성공해보려고 여성은 끊임없는 다이어트와 성형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마침내 여성이 ‘ 망령 ’을 원망하자 “ 누가 따르라고 했어? 네가 선택한 것이잖아! ”라면서도리어비난한다.
그 망령은 여성의 몸과 얼굴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 날씬한 몸과 성형미인의 얼굴 ’을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성의 생존 ‘ 필수조건 ’으로 믿게 만드는 몰지각한 사람들이며, 그에 맞장구를 치는 사회와 매체들이라 생각한다. 유혹과 맞장구에 여성은 자신의 몸을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에 눕히게 되고, 이리 저리 재단 당하다가 퍼포먼스의 주인공처럼 죽음으로까지내몰리게되는것이다.

성형과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광풍이 사그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성환경센터 활동가 정은지씨는 여성들이 성형과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들을 과도한 성형 · 다이어트 열풍으로 몰아가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매체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성형 ·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어려운 것처럼 각종 매체들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정은지씨의 지적과 같이 TV의 경우, ‘ 과도한 성형과 무리한 다이어트 ’의 폐해를 보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성공한다. ’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동아TV에서 성형수술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것이 다이어트와 성형을 부추기는 매체의작태를보여주는일례이다.

다이어트, 성형수술 대국의 여성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다이어트, 성형수술대국이다. 아시아에서 미용성형수술 1위로 그 시장규모는 연간 7천억~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융비술(콧속에 실리콘, 고어텍스 등을 삽입하여 코의 윤곽을 높게 하는 수술), 근육퇴출수술(일명알다리제거수술), 두피절개안면윤곽술(광대뼈 낮추기 수술) 등 일정부위 수술에서 몸의 구조를 바꾸는 성형수술까지 시술되고 있다고 한다. 일단

성형수술을 하면 평생동안 계속 보수를 해야 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스트레스는얼마나될까?

다이어트 시장은 어떠한가? 황제다이어트, 커피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훈증다이어트, 심지어 풍선다이어트까지등수많은다이어트들이‘ 쭉쭉빵빵 ’몸매를내세우며수많은여성들에게소위 ‘ 저주받은 몸 ’에서 벗어나 줄 테니 돈을제물로받치라유혹하고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형이며, 다이어트인가? 이러다간 대한민국 여성들은 모두 똑같은몸매와얼굴을가진‘ 인조인간 복사판공화국 ’이 되는것은아닐까? ‘ 마이클 잭슨 ’은 자신의 피부색을 혐오했기에 더이상 칼을댈 곳도없어진 흉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그의 예는 외모를 아무리 고쳐도 열등감을 보상해 주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에 백인도 흑인도 아닌 인조인간이 된 것이다.

내 몸 사랑을 위한 10가지 약속

끝으로, 이날 캠페인에서 발표된 ‘ 내몸사랑을위한 10가지약속 ’을소개한다. 10가지약속을 곱씹어 읽어보며나는얼마나내 몸을사랑하며 아끼고 있는성찰해보자.

1. 내몸의소중함을알자.
2.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3. 외모를 빗댄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4. 외모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새뿐임을알자.
5. 과도하게 내 몸을 괴롭히는 행위를 당장그만두자.
6.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이 내 삶을 바꿀수없음을알자.
7. 내게 맞는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하자.
8. 외모지상주의를부추기는상품을구입하지말자.
9.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TV 등 미디어매체에대해적극항의하자.
10. 하루에5번씩자신을칭찬하자.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얼굴을 원망하며 성형과 다이어트의 수렁 속에서 희생되어야 이 광풍이 멈출 것인가?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로 잃어버린 건강은 수술로도 되찾을 수 없다. 더이상우리몸을 ‘ 다이어트, 성형시장 ’에 내어놓지 말자.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없는소중한존재이니까…

황은영 | 『함께가는여성』편집위원.
자기성장컨설턴트로민우회회원으로
왕성한활동력을펼치고있는에너자이저

21세기형 우매한 여성 - 외모로 말한다

권지현

『왕자의키스로재투성이신데렐라에서아름다운공주가 되기를꿈꾼다. 그런데… 정말여자들이그럴까?
여고시절 ‘ 아시아의 마녀 백옥자 에 버금가는 ‘ 강원도의 마녀 로 불렸던, 투포환소녀 마영희. 힘세고 튼튼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예쁘지 않은 그녀.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하는 요즘, 그녀는 여전히 마녀다. 사랑을 찾아 스쿠터 타고 나는 귀여운 마녀의 좌충우돌 로맨스 주인공되기! 이제그녀의사랑법을훔쳐보자. 백마탄 왕자를확낚아채는마녀의사랑법을!』
이것이 KBS드라마 백설공주의 기획의도이다.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하는 요즘 세상에, 예쁜 외모가 아닌 마영희의 좌충우돌 삼각관계가 바로 이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이다. 또한 ‘ 예쁜 외모가 아닌 여성도 근사한 두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세상의 못생긴 여성들이여. 희망을갖고살아라! ’ 가이드라마의주제이다. 적어도 기획의도만보면…그러나과연이드라마가기획의도대로잘나아갔을까?

여성들의 인생목표 - 남성의 사랑 얻기?

백설공주에는두여성이 등장한다. 이드라마는철저히이두여성의남성사랑쟁탈기이다. 한 남성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녀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남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할 정도이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다. 단순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면 사랑에 빠진 죄를 탓해야지 달리 문제삼을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이드라마에등장하는두여성은모델이되기 위해 애쓰고, 케익을 굽기 위해 노력하고, 아나운서가되는등의행동동기는한 남자에게서나온다. 그녀들의남자에대한사랑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나침반과같다. 이나침반은남자와 같이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호감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녀들에게 직업선택이 자아실현일 수 있는 문제는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글자이다. 그녀들의직업선택은오로지‘ 진우 의 관심에서만 나올 뿐, 그 안에 자아는없다.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의 상관관계

이드라마는중반까지두명의주인공마영희와 정희원의 각각 대비하는 외모와 성격, 능력을 그리고 있다. 초기 영희는 투박한외모즉평범보다못한외모로설정되었다. 까만테 안경과 우스꽝스러운 퍼머머리로이를강조한다. 또한그녀는 대단히 덜렁대고 실수가 많으며 무능력한 반면 순진함을 가진 곰 같은 성격의 여성이다. 어린애 같은 순진함은 장점으로도 보이지만 이 여성의 무능력과 백치 같은 상황 판단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단점이 된다. 또 한 여성인 희원은 성형미인이다. 남자를잡기위한작전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연적 영희를위험에빠뜨리는유치한짓은하지않는다. 잔머리를많이굴리고내숭이 심하며 영리한 그녀는 투박한 영희와 대비를 이룬다.
영희와 대비되는 또 다른 인물로 ‘ 선우 ’ 라는남성이등장한다. 진우의동생 선우는 영희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다. 잘생기고 똑똑하며 능력도 있어 영희가 실수를 하거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수습하기도하고도와주기도한다. 또한영희가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나타나 그녀를 구출하더니결국영희의남자친구가된다. 연적인 여성 대 여성의 대비, 여성 대 남성의 대비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 못생긴 외모 - 바보스러움 - 무능력 ’과 ‘ 아름다운 외모 - 영리함 - 능력있음 ’. 외모에서 시작한 차별성이 성격, 능력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대비는 ‘ 여성 - 무능력 ’, ‘ 남성 - 능력있음 ’으로나타나여성은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드라마는중반을 넘어서면서영희는 안경을 벗고 외모를 세련되게 가꾸어 자연미인으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외모가 변했다고 해도 그녀의 무능력함은 전혀바뀌지않는다. 이렇게겉모습만바뀐 그녀를 보며 진우는 갑작스레 영희를 좋아한다고 느낀다. 이는 애초에 영희를 통해 이 드라마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실된 사랑에 외모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기획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된다.
이 드라마는 어떤 점에서 영희가 사랑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는, 외모가 아닌 그 ‘ 무엇 ’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영희에게는 자연미인이 된 외모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따라서 선우가 영희에게 보이는 관심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않는다.
이는 자신의 앞가림을 너무 못하는 여성에대한지나친연민이아닐까생각이들정도이다.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여주인공의 캐릭터는 결국 외모지상주의를 더욱강화하는결과를낳는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성형

성형이라는 소재는 드라마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왔던 코드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성형을 받은 주변적 인물이 등장하고 그 효과에 대해 농담처럼 말함으로써 성형이 일부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 백설공주 에 등장하는 ‘ 성형 ’은이전드라마와는다른경향을보인다.
우선 여주인공 중 한 축인 희원이 성형받은 인물이다. 영희도 성형외과의 수술대까지 앉은 이력이 있다. 여주인공들에게성형은큰 이슈이면서또한쉽게선택되어진다. 오히려 성형을너무 쉽게선택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보면 드라마를 끌고 가는 중심인물 어느 누구도 성형에 대한거부감을갖지 않는다. 희원은말할 것도 없고 영희, 진우도 역시 그렇다. 진우는 희원의 성형사실을 알게 되고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좋아하는 상대 남성이 성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희원의 예뻐지기 위한 성형은 정당화되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드라마가성형보다는자연적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 성형의 긍정적 효과도 많은 시청자에게 전파시켜버렸다.

그럼 다시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로 돌아가 보자.

“ 힘세고튼튼하고씩씩하고, 그리고예쁘지않은마녀, 마영희의사랑법을훔쳐보자. 백마탄 왕자를 확 낚아채는 마녀의 사랑법을! ”
그녀의 ‘ 사랑법 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 외모변신 이다. 이 드라마전반을 통해 우리는 ‘ 마녀 ’ 마영희가 ‘ 미녀 ’ 마영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사랑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제 또한 ‘ 자연미인 이 ‘ 성형미인 을 이긴다는단순한계몽속에서여전히남성의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 미인 이어야만 한다는것임을알았다. 이는 여성의능력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현실사회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성형 등의 소재를 통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은 ‘ 사랑은 외모로하는것 ’이다. 드라마에는수많은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 백설공주 노 성형이라는 소재를 다룬 점에서는 주목할 점이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죄충우돌하면서 다소 코믹하게 전개됨으로써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여지도 주었다. 그러나 ‘ 백설공주 는 성형 소재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외모지상주의를 강화시켜낸다. 한편 순수라기보다는 우매한 여자주인공을 그림으로써 반여성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답답한 이야기흐름을이어간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사랑 찾기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열등적 존재라는 인식을 더하고 외모에대한비하는정도를넘는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드는 의문. 계모의구박으로 산 속으로 쫓겨나서 일곱 난쟁이와 왕자의 도움으로 행복을 찾는 백설공주 이야기와 이 드라마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권지현 |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모니터분과장
미디어운동본부의밉지않은(!) 게으름뱅이라네요~ ^^

말이 씨가 된다

유기성

"좋아, 우리말 놓자!"

갑자기 도발적으로 대꾸하자그는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망연자실 나를 바라봤다. 로맨틱과 환상이 일순간 와장창 깨진 표정이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 남자선배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랑 만날래?" 물었고, 나는 일초의 여유도 두질 않고 즉각 반말로 ‘ 맞짱 ’을 떠버린것이다. 과연앞으로저애랑사귀어야하나,
말아야 하나 난감해 하는 그를 향해 나는 또다시표창을 날렸다.
"난, 부부나애인사이는나이를떠나서동격이라고생각해. 언어의 평등없이 의식의 평등 없고, 의식의평등 없이존재와인격의평등도없다고생각해! 싫으면관둬!"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랬다. 나는 그때 예민하고 저항적인 영혼이었다. 매사송곳처럼날카로운 23살의젊은여자였다…
당시 하늘같은 3년 선배인 그가 말랑말랑하게 사귀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찬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듯 분위기를 깨며 파격적인 발언을 했고, 평소 ‘ 얌전하고 다소곳한 여자애 ’가 느닷없이 돌변, 본색(?)을 드러내며 대들 듯 나오자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참 뒤 그가 다소침울한표정으로무겁게입을열었다.
"그래, …생각해보고, …연락줄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초조하진 않았다. 어차피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았으며, 나는내조건에동의하지않는남자는애초에사귈 생각이 없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수준미달인 남자와 대충 사귈 순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연락이 왔다.
"음, …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둘만 있을 땐 반말을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선 나를 선배대접 해줬으면 좋겠어".
"좋아! 하지만 이제부턴 내가 단순한 여자후배가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 기성아 ’라고 부르지마. 꼭 ‘ 기성씨 ’라고‘ 씨 ’자를붙여줘!"
그가 큰 결심하듯 심각히 고갤 끄덕였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땐너무도중대한 사안이었고,‘ 호칭의 평등화 ’에 합의한 뒤에야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해 지금껏 똑같이 반말하고, 똑같이경어쓰며잘살고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 "니가 먼저 나를 열받게 했잖아!"
"여보, 당신 먼저 드세요" - "아니에요. 자기부터 드세요"…
말이씨앗이된다! 이번 17대총선에서사상유례없이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39명으로 늘어난 2004년 5월 현재, 서울 한복판에서 일곱 살배기 둘째 아들은 아직도 이런 노래를부르고있다.
"아빠가 일하는 소리 쿵닥, 쿵닥~,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 타닥, 타닥~, 오빠가공부하는소리 하나둘셋, 에비씨~, 언니가화장하는소리또각, 또각~…"
기가 막힌다. 남자들은 일하고 공부하는데, 여자들은 요리하고 화장이나 하고 있다니!… 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 전원이 여성인데, 아무런 의식 없이 전근대적, 성차별적 노래가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또 여전히 노인들 사이에서 결혼 시켰다는 의미로 "딸 치웠어!" 하는경우가있는데,‘ 출가외인 ’도없어져야할단어고, 딸은‘ 치워야할물건 ’이아니다!
선명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성차별적인 관행이 고스란히 스민 단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익숙하게 사용해 마치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을 통해 뿌리깊은 가부장주의가 현재 이 순간도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유지,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 자동차 이름 ‘ 체어맨(chairman) ’만 해도 그렇다. 아무 의심 없이 ‘ 성공한 사람, 최고 경영자는 곧 남성 ’이라는 등식이 전제된 단어다. 체어맨은‘ 의장, 회장, 위원장은 늘남자였고, 남자이고, 남자일 것이다 ’는 일방적 전제가 거리낌 없이당당히(?) 표현된말이다. 물론체어우먼(chairwoma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굳이 성별을 구분하지 말고 그 자동차 이름은 ‘ 체어펄슨(chairperson) ’으로고쳐야한다고생각한다.
흔히비행기승무원을‘ 스튜어디스(stewardess) ’라고하는데, 이것도잘못된표현이다. 스튜어드(steward) ‘ 일을 맡은 자, 직분자 ’라는 뜻인데, 스튜어드의 여성성인 스튜어디스를 승무원을 지칭하는 보편적 단어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밥 나르고차 대접하고, 온갖 시중 드는 하녀 같은 이미지가 당연히 여자이기 때문에 스튜어디스라고 통칭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승객들 먹이고 돌보는 일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남을 떠나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엔 스튜어디스 대신 접객 승무원이라는뜻의 ‘ 플라이어탠던트(flight attendant) ’라고쓰는지 모르겠다. 영화에서도 경찰을 ‘ 폴리스맨(policeman) ’이라고하는데, 남자만경찰인가? 그럼여경들은뭐라고부를 건가? 폴리스맨 대신 ‘ 그냥‘ 경관 ’의 뜻을 가진‘ 폴리스오피서(police officer) ’라고하는게바람직하다. 또흔히 ‘ 청소년 ’이라고 통칭하는데, 분명 여자도 있으니‘ 청소녀 ’라는 단어도 널리 쓰는 게 옳다고 본다. 그리고 성관계를 ‘ 삽입성교 ’라고 하는데, 여자 입장에선 ‘ 흡입성교 ’가 정확한 표현이다.‘ 살색 ’이라는 말도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단어다. 흑인, 백인, 황인종 가운데 누구를 중심에놓고, 당연히‘ 살색 ’이라고하는가!
언어는존재의집이다. 언어는세계관과가치관의표현이고, 욕망과 존재의 표현방식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가쓰는말들을가만히귀기울여보면된다.
남성중심의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여남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근본적이고기초적인언어습관부터고쳐나가야할것이다!

유기성 | 「함께가는여성」 편집위원, 시인

살맛나는 세상,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홍미용

말걸기

- 이름: 김성임
- 가족: 회사원인 남편,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두 딸
- 하는 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운영위원, 신나는 자녀 교육 소모임 회원, 당당한 에미이자 아내
- 별명: 미련 곰땡이였다가 민우회에 나오면서 예쁜 아줌마, 스타 성임이 되었다.
- 어릴 적 꿈: 탤런트. 알고 보면 숨겨 논 끼가 많았다.
- 특기: 사람 만나면 두 손 흔들어 너무나 반갑게 아는 척 하기
-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 딸 둘 낳은 것. 민우회 가입 한 것.
- 요즘 가장 살 맛 나는 일: 남편이 너무 똑똑해지지 말라고 할 때. 남편이나 아이들 앞에 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서 말발 세울 때. 역시 조직의 힘이 크다는 걸 느낀다.

그녀가 요즘 정말 살맛이 난다고 한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십이넘으면불혹이라세상사희노애락에혹하지 않는다 했는데 듣는 사람의 귀가 솔깃해지는 그녀만의 뭔가 특별함에 대해 들어 봤다. 회색 슈트 정장에 까만 핸드백에 구두까지 예의를 갖추고 약간은 수줍고 어색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서는 사람. 길가다 슈퍼나 그도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한 번은 만났을것같이낯이익다.

“ 저찾기쉬워요. 촌스럽고못생겼거든요. 그런사람찾으면되요. ”전화로만날약속을하면서그가건넨말이었다. 하지만그건 사실이아니다. 소박하고진솔해보이긴 하지만못생겼다는 건지나친겸손이었다. 게다가밝고환한인상이몸은가냘퍼도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처음 말을 나누는 사람을 편하고 기분 좋게만들어준다.

그런그녀가어제저녁엔잠을설쳤다고한다.‘ 뭐, 그리대단한 인터뷰라고 ’ 미안함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내놓고받아볼기회가별로없는우리네아줌마들에겐 인터뷰어가된다는경험이낯설지만설레는경험임은분명한가 보다. 사진촬영을위한포즈하나에도정성껏함박웃음을지어 보이는그녀가귀엽고정겨웠다.

우울한 생활 속으로 민우회가 들어왔다

그냥 집에서쭉 살림만했을 것같은 얌전해보이는 인상과 달리 10년가까이 은행에서 직장생활을 했다고 한다. 지금생각해보면진급시험공부도하고, 끝까지악착같이다닐걸하는 아쉬움이남기도했지만이런저런고민조차할틈도없이그냥 매일 바쁘고 힘들게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저 한사람의 충실한 일꾼일 뿐이었다. 자신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둘째도키워야하고쉬고싶은마음도간절해 퇴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더한 우울함과 마주해야 했다고 한다. 여전히 그만을위한시간도, 공간도존재하지않았다.

아이와남편에게잠시해방되어동네아줌마들과 함께 하는커피타임은무료하기만했고남편의 ‘ 당신이 뭘 알아 하는 한마디에 점점 초라하고우울해지는자신을발견할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정성을 들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솔직히 속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는 거리가있었다. 어쩌면, 그냥그렇게평범한아줌마의 삶을힘들어하는만큼그녀의내부에는뭔가를향한억눌러왔던에너지가쌓여가고있었는지도모르겠다.

그런그녀가2001년변화하기시작했다. 동생의권유로가입하게 된 민우회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줬다고 한다. 한없이 초라하고 우울하기만 했던 그녀가 조금씩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된것이다.“ 그때가정회원되고얼마되지않아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여성과 평화라는 주제의 봄 강좌를 수강할 때였어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글쎄나랑별로달라보이지않는그런아줌마들이강사한테진지하게질문을하는거예요. 그것도여성과평화라는거창한주제로…얼마나놀랍던지. ”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것이 부럽고 대단해 보였던 거다. 그후강좌건소모임이건부지런히쫓아다녔다고한다. 아이들교육, 여성문제, 사회정치등집안의울타리에만갇혀있던 그녀의관심사가넓어지게되었고주변에비슷한 고민을하는좋은사람들과도많이만나게되었다. 그러면서자신이즐거울 때비로소아이나 남편한테도의무가아니 진심에서우러나서잘할수있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고한다. 나는아무일도 하지않는다는 남편에대한열등감도 없어졌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는자신의일도중요한일이라고인정하게되면서스스로를긍정적으로보게되었다. 식구들앞에서도 훨씬 떳떳해졌다. 자신의 이런 변한 모습을 딸들은 좋아하고 남편은 좀 두려워한다. 그녀자신도몰랐던밝고적극적인본성이서서히피어나기시작한것이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만들어 가는 그녀만의 네트워크. 에너지 충전소

2003년 그녀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다.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투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사회문제에대한발언은일부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자신과같이평범한아줌마도세상의 변화에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비록 관통도로는 뚫리게 되어 집 뒤의 수락산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그녀는 호주제 폐지나성폭력문제등사회적이슈에대한자기목소리를낼수 있게 됐고 세상은 바꿔가야 하는 곳이며또 바꿔야겠다고 절감하게됐다고한다.

올해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녀에게민우회는가족이아닌남들과진솔한삶의 고민을함께나누며에너지를받아가는곳이며그녀만의네트워크를만들어가는곳이다. 아마집에서계속있었다면그녀는우울증에 걸렸을거라고했다.

“ 제가 좀늦어요. 남들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알아 놓고선 이렇게좋아하는것봐요. ”하지만그녀는한걸음늦게시작했더라고머리로가아니라아는만큼몸과마음을움직여주는열정을가지고있었다. 미련스러울만큼의책임감도있다. 그녀만의장점이며생활이즐거운이유다. 그런그녀가 6월이면진한 애정을 쏟고 있는 신나는 자녀 교육 소모임에서 2주년 기념으로 뜨거운 1박 2일 여행도 간다고 한다. 남편과 자식을 떼어놓고난생처음집밖에서자고오는거란다. 너무기대된다고한다. 또한번새로운경험으로자신을내보내는거다.

“ 이젠 ‘ 내가 뭘 못해? ’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해도 잘 할 것 같고…. 웃기죠? ”그렇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경험들이그녈맞이할지모르겠다. 그것이돈을버는일이건공부를 하는 것이건 그 무엇이든 그녀의 몸과 마음이 go! 하는 순간 이루어질것이다. 그렇게믿고싶다. 파이팅아줌마 ! ! !

홍미용 | 『함께가는여성』 편집위원
처음만나마주앉아차를마셔도부담없이몇시간이라도얘기나눌수있는,‘ 달필 의차분녀.

어느 가난한 기자의 독백

윤옥경

#. monologue1.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40대중반을넘은지역신문아줌마기자다.
한달에신문세번내기에돈도노동력도힘에벅찬신문사에
많지않은월급제날짜에받기힘든가난한기자다.
오늘은당직토요일. 혼자컵라면으로점심을떼웠다.
그맛이아주나쁘진않다.

오랜만에혼자인 여유를 핑계로 그 동안 나를 번민하게 했던 생각을 쏟아놓고 머릿속에 있던 것을눈으로 확인
해보고다시그것을머릿속에각인해두고싶다.
다시는똑같은고민을두번하지않기위해.
내가가지고있는것.
나이 마흔 여섯, 어느새 일곱이 되었다. 나는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내 책상이 있고 취재부장이라는
명함을가지고있다. 그리고부족한부분을메우기위해사이버대학에서법학을공부하고있다.

집에있어봤자무슨용꿈꿀일있겠나?
00언니, 총장님남편덕분에청와대도가고세계여행하고맛있는것먹지만혼자는찜질방밖에갈데가없다.
돈은안돼도사람만나취재하고토론하고글쓰고공부하는것이더나은것아닌가?
이렇게생각하니그리나쁘지만은않네?
그러나전혀돈이될것같지않은‘ 법학 ’.
요즘인터넷시대에역행하는선택을한것같다.
기자해서출세하는일은아마없을것같다.
기자로출세할수있다면우리사장님도했어야지지금그렇지않은걸보면…
지금가난하면서도이돈안되는기자와돈안되는공부를해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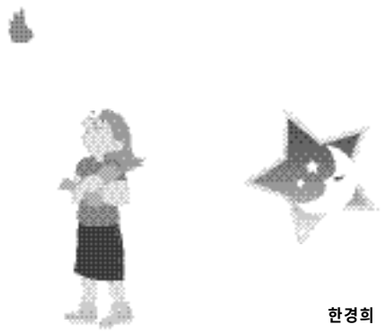
#. monologue2. 나 그리고 내 인생

나는어릴적부터실용성과는거리가멀었다.
돈걱정안해도되었던집안경제탓도있었겠지만 머리자체가그리영리하게돌아가지않는다. 재치, 눈치, 영
악함, 사교성 이런 성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 이 일하기가 힘들 수밖에. 나는 좋게 말하면 학자형이고 나쁘
게말하면미련둥이.
말없이 참고 버티고 견디며 시간을 보내는 형이다. 개혁이 용기라면 인내도 용기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같은데내가하는일에도인내가필요한지? 순발력이더필요하지않은지? 나를선택하게만든다.
글을쓰면서나를돌아보니갑자기비감한생각이든다.
‘ 어떻게재주를요렇게작게타고나이런고민을하고있는지… ’
누구든자기능력에만족하는이가그리흔할까?
대통령도오죽하면못해먹겠다는이야기가나오는데하물며나같은사람이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일도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너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작은일에충실하자.
오늘의결론이다.
이미이런결론을마음속에가지고시작한글인것같다. 다시는‘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지말자.
이것은신문사를위해서가아니라나를위해서다. 내인생이다. 신문사나누구개인을위해서가절대아니다.
그들이내인생에잠시등장했을뿐내인생의주인공은바로나. 하나님이쓴시나리오에내가주인공이다.
오늘또취재현장에나가그들의이야기를열심히듣자.
…….
며칠전에는다른사람의이야기를들어주어야지했는데오늘은나하나도추스르기힘들다. 자신도없고.
혜경이랑통화를했다.
‘ 아무도쉬운일을하고있지않다 고한다. 에이! 다접어놓고영화나보러가야겠다.
지독히고생한사람들의이야기‘ 실미도 ’.
신문기자안하면뭐하나?
신문기자하면서뭐하면되잖아. 여행. 운동. 춤놀면서하면되잖아. 그래그러지뭐.

일년 중 7월 달 여성주간이나 여성복지과 공모사업 따위의 취재로 간간이 민우회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 여성
학 ,‘ 성인지적시각 이라는말을접하게되었던것같다.
호기심이발동했다.‘ 성인지적시각으로세상을보면사회현상들이어떻게달라보이나? ’
‘ 나도회원에가입해도될까요? ’ ok ’
이제민우회6개월새내기회원이다. 아직‘ 성인지적시각 을갖추지못했다. (그러면사시인가?)
이제천천히함께보폭을맞추어갈생각이다.

윤옥경 | 군포여성민우회회원이며발로뛰는지역신문기자

그날 이후…



한경희

그랬다.

그날의 날씨라든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의 설레임만은 기억이 선명하다. 내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를 배우던 중 우연히 미디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과 주변의 권유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가입하게되었다. 교육분과에처음가던날, 아침부터얼마나가슴이두근거리던지… 초등학교때소풍을가는날처럼들떠있었던기억이난다.

그리고 1년 후… 변화에 관하여

정말로많은시간이흘렀고정말로많은변화가있었다.
변화 하나, 생활의 발견. 그저 그렇게 재미로만 보던 텔레비젼 프로를 여성의 눈으로 볼 줄 알게 되었고, 양성평등에대한새로운 의식을갖게되었으며, 일상생활의모습도좀더건강해졌다고말할수 있다. 이를테면생협을 이용하면서 식탁의 중요성과 가족의 건강을 더욱 챙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슈퍼마켓이나재래시장, 혹은트럭에싣고 다니는과일과채소를손쉽게 사먹던 생활방식이무농약과성장촉진제등의여부를 따져서구입하는 현명한살림설계사가되었다.

변화 둘, 이해의 지점

그리고 여러 초등학교에 미디어 교육을 나감으로서 초등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 바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잘 알고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자주성없이 시키는대로만움직이도록 조정되고 있으며, 자신의의견을당당하게나타내는아이들에게는당돌하다

혹은되바라지다는표현을서슴지않고하는사람들이바로우리어른들이라는것도너무나잘알고있다.
그래서요즘아이들에게는휴식이필요하며한 박자천천히쉬어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 것을이해하게되었다. 그것은아울러내 아이에대한이해도 수월해졌음을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는사춘기가되어비밀도많고짜증도많아진딸아이의투정을웃음으로받아넘길수있는수준이되었다.

그리고무엇보다의식이건강한선생님들과자주만나게 됨으로나의의식도함께건강하고건전해져가고있음을느낀다.‘ 선생님 이라는호칭은처음에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하지만지금은가장친숙하고, 부담없으며자주사용하는호칭이되었다.

선택 그리고 기회에 관하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나에게는 미디어운동본부와의 만남이 좋은 선택의 기회가되었고, 그기회를잘잡은것같다.
그때만일, 남편과아이들보내고옆집사람과차나마시면서그럭저럭시간보내는 그런주부의모습으로남아있었다면, 아니이런신선한삶이 있다는것을알지도 못하는인생이었다면, 나중에라도아는순간우울증에걸렸겠지. 무언가할일이있고, 나를필요로하는곳이있는삶은, 그리고그것이국가와사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뿌듯함은 무엇과 비교할수있을까?

깨어나는 中 그리고 깨어나길….

그날이후, 나는 내안의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시사프로그램에귀기울여지고별 관심없었던정치뉴스가잘들리는 현상들이 비단 나 한사람만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디에서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싸게 판다는 소식보다좀더쾌적하고좋은환경에서우리아이들이공부할수있는방법을찾는데내시간을투자하고싶다.
학교졸업후결혼이라는제도속에서여성들의의식은잠자고있다.
그녀들! 하루빨리깨어나서다함께앞으로나아갈수있는그날이왔으면좋겠다.

한경희 |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교육분과총무
겸손하고웃는모습이예쁜, 회원확대의새로운장을열왕눈이!!

● 여성리더쉽제고를 위한 토론교실

일시: 5월 4일 - 6월 24일 오전 10시 (5월은 매주 화요일, 6월은매주목요일 / 총8회)
장소: 양천문화회관 (5월은 3층 강의실, 6월은 지하1층 회의실)
내용: 참여적 토론을 위한 기본 방법들 / 다양성과 차이 존중하기 / 중재 및 협상훈련 / 합의하기 / 집단의 창의적 아이디어 모으기 / 미래 체험학습 / 다자간협상훈련/ 생선접시 게임
문의: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전화: 02-2643-1253)

●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 및 워크샵

그동안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를비롯한한부모지원활동단체에서는한부모들의심리적, 정서적지원을위한개입과더불어양육비확보를위한다양한정책등을제안해왔지만, 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많은어려움들이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등을위해서, 효과적인한부모프로그램운영과 정보제공, 효율적인한부모가족지원체계로서의역할을위해서단체네트워크를구성하고자합니다.

대상: 한부모지원단체, 한부모, 전문가(학자, 사회복지사, 변호사등)
일시: 5월 28~29일
장소: 노동사목회관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발족식, 한부모가족지원단체 네트워크 참여자워크샵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전화: 02-739-8858)

● 여성&환경 강좌

6월한달동안여성과환경에대한강좌를총5회진행합니다.
관심있는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교육에참가하실분은장소관계및준비물관계상사전접수를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10일 ~ 7월 10일
내용: 제 1강<에코페미니즘> 강사: 김재희(6/10, 오전10시30분)
제 2강<실천하는 대안적 삶 ' 작게, 적게 천천히 ' 강사: 박경화 (6/17, 오전10시30분)
제 3강 <여성의 몸과 환경을 위한 대안생리대 만들기워크샵 1> (6/17, 오후7시30분)
제 4강 <여성의 몸과 환경을 위한 대안생리대 만들기워크샵 2> (6/24, 오전10시30분)
제 5강 <한의사 이유명호와 함께하는 ' 나의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 (7/10, 오전10시30분)
교육비: 회원 - 1회참가 5000원, 4회전회 참가 15,000, 비회원 - 1회 참가 7000원, 4회 전회 참가 20,000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전화: 02-734-1045)

● 성교육 전문 강사 워크샵

청소녀성교육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성교육을하는교육자의성에 대한가치관과청소녀를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청소녀를미성숙한존재로보지않고한인격체로바라볼수있어야진정으로청소녀들의성장을돕는성교육을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각단체와기관에서활동하는성교육강사들이모여앞으로의성교육방향에대해논의하고그대안을함께찾아가는것은아주중요한일입이다. 아직도현장에서는성교육전담교사의부족과활용교육자료가미비하여몇백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일회성의주입식강의나영상물로성교육을대체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현재의성교육을 탈피하기위해서는청소녀들에게적합한성교육 프로그램의내용 및방법론의개발이필요합니다. 이에심도깊은성교육전문강사워크샵을마련하였습니다.
워크샵에서는 성교육강사들의 성의식 점검을 비롯하여 청소녀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방법론연구、강의시연등의과정을통해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대상: 교사및 성교육 강사 40명
일시: 6월 25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5시
장소: 여성플라자
내용: 1) 청소녀, 어떻게 볼것인가? -청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
2) 성교육 강요충분조건
3) 지금까지의성교육 - 그 평가와대안 찾기
4) 청소녀들이말하는 성교육 - 우리가 원하는 성교육은?
5) 강의시연1 - CD롬 활용을통한 성교육
6) 강의시연2 - 강의 형식의 성교육
7) 강의시연3 - 집단프로그램 형식의성교육
8) 강의시연4 - 캠페인부스 형식의 성교육
9) 통합토론 및 평가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전화: 02-739-8858)

● 산지견학 팔당생명살림 유기농 체험 견학

2004년회원참여프로그램으로계획된유기농체험견학입니다.
2004년 회원확대 캠페인 "친구야! 빗자루 타고 민우회 가자!"에 함께 뛰었던 회원님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물론, 이캠페인에는함께하시지못하셨어도민우회회원님이시면누구나환영~ 함께여름맞이여행을가요~~~

일시: 6월 27일 8시30분 출발, 4시 서울로 출발
장소: 팔당생명살림 새서울 친환경 송촌리 농장
참가비: 1만원
준비물: 장바구니, 모자, 수건, 음료수 및 간식
내용: 유기농업과생명살림, 자연과의 대화, 우리콩두부만들기, 현장체험 등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회원참여팀 (전화: 02-737-5763)
※ 6월 18일까지 90명의 회원 (선착순)을기다립니다.

● 미디어 바로보기 강사워크샵

2003년에이어올해에도,「미디어바로보기강사워크샵」을진행합니다. 지역간교육편차를줄이고다양한양질의교육을제공하기위해각지부의미디어교육담당자와미디어교육강사들도참여할수있도록기획했습니다. 미디어교육에관심있는담당자나강사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대상: 각 지역의 미디어교육 담당자, 미디어강사, 글쓰기나 NIE 경험이 있는 분
일시: 6월 11일 7월 2일(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5층 교육장
회비: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567-810002-20604,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내용: 1) 미디어 교육의 이해와 현황, 교수법과 교안작성법 2)사진으로 본 미디어 3)광고 텍스트 읽기
4)방송비평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색채와 미디어 읽기 6)인터넷 이해와 활용
7)보도(신문과 방송) 8)미디어교육 사례발표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전화: 02-734-1046/ 737-1388)

※ 미디어운동본부 강사뱅크에 등록되며 하반기 미디어교육에 참여기회제공

● 들꽃나들이

주변에서볼수있는다양한수종을관찰하고숲보호의중요성교육을자연에서어린이들과함께합니다.

[하나] 이우철교수님과함께하는들꽃교실
일시: 6월 27일
장소: 강원대학교학술림
내용: 자생식물과귀화식물 알아보기, 여름철에 피는 초화 관찰

[둘] 도농교류캠프 (1박2일)
일시: 7월 25일
장소: 양구도사리밭
내용: 감자 · 옥수수 수확하기, 자연친화놀이
문의: 춘천여성민우회 (전화: 033-033-255-5557)

● 여성노동상담원교육

원주여성민우회에서진행하는총8회의노동상담원교육(1일4시간)

대상: 춘천시 및 인근 지역 일반여성 및 직장여성, 노동조합 활동가 등 30여명
일시: 6월 중순
내용: 1) 노동, 여성으로바라보기 2)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법의 활용방안과 전망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5)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권리 6) 성 주류화의이해와 노동조합활동
7) 여성 노동관련법 8) 알아두어야할 노동관계법
문의: 원주여성민우회(전화: 033-732-4116)

● 초경캠프

초경을맞이한어린이및청소년을위한초경캠프가열립니다.
초경을축하하는달들기, 청소녀성교육등재미있는내용의캠프입니다.

일시: 7월 30일 ~ 7월 31일
참가대상: 초경을 하는 서울지역 어린이(초5년~중1)
참가비: 1인당 3만원(정회원 자녀의 경우 10% 할인해드립니다)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전화: 02-734-1045)
※ 중2~고2 청소년을 위한 월경캠프는 8월 6~7일에 열립니다.
※ 선착순 마감입니다.

● 민우 여성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관찰하고 숲보호의 중요성교육을자연에서어린이들과함께합니다.

일시: 7월 중순
내용: 여성주간 특강(2회),
찾아가는 민우여성학교(총4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통 · 반장 대상)
문의: 춘천여성민우회(전화: 033-255-5557)

● 평등한 일 · 출산 · 양육을 위한 캠페인 II

도전! 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 맞춰라 - STOP! 출산해고, GO! 평등양육

도전! 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 맞춰라.
출산율 1. 17, 이는 출산, 양육을 여성 개인만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남성과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경고입니다. 일과 출산, 양육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시간과 관계의 퍼즐의 맞추고 있는 여성들은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

STOP! 출산해고 - 임신과출산이 여성이 일하는데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다시 일할수 있도록, 출산휴가90일보장은너무나 당연한이야기가 되도록 할까 합니다. 출산해고 신고전화 신설, 이름하여<워킹맘5050>: 02-706-5050

GO! 평등양육 - 아이는 여성 혼자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낳아서 함께 키워야 합니다. 양육에 대한 평등한 참여는남성의권리이자여성의평등한노동시장참여를위한조건입니다.
자, 이제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맞추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볼까요~.

5 May

28~29	가족과성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발족식및워크샵
	사무처	성인지적정책과예산분석심화교육

6 June

3	서울남서	여성리더쉽제고를위한토론교실(매주목)
	원주	보육실태조사
4	원주	이우철교수와함께하는들꽃교실(강원대학교학술림)
6	서울남부	홍성오리입식
8~9	광주	북구여성지도자연수회
10	여성환경센터	여성& 환경강좌1. 에코페미니즘
	서울남서	여성리더쉽제고를위한토론교실(매주목)
11~13	광주	활동가리더쉽훈련
11~7. 2	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바로보기강사워크샵
12	원주	생태기행
17	여성환경센터	여성& 환경강좌2. 실천하는대안적삶
	여성환경센터	여성& 환경강좌3. 대안생리대만들기워크샵1
	서울남서	여성리더쉽제고를위한토론교실(매주목)
18	원주	보육예산분석토론회
19	인천	"여성한부모를위한한부모교실" 단독비행"
24	서울남부	민우여성학교(미디어-인터넷)
	원주	단구초등학교성희롱예방교육
	서울남서	여성리더쉽제고를위한토론교실(매주목)
25	여성환경센터	여성& 환경강좌4. 대안생리대만들기워크샵2
25~26	여성환경센터	성교육전문강사워크샵
26	인천	"여성한부모를위한한부모교실" 단독비행"
27	사무처	산지견학팔당생명살림유기농체험견학
	춘천	들꽃나들이1. 들꽃교실
중순	춘천	노동상담원교육(총8회)

7 July

1	광주	여성주간행사
3~4	사무처	본부상근활동가워크샵
3	원주	"제3회원주여성문화제" 평등, 평화, 나눔"
	인천	"여성한부모를위한한부모교실" 단독비행"
6	원주	남원주중학교성희롱예방교육
10	원주	생태기행
	여성환경센터	여성& 환경강좌5. 여성몸이야기
	인천	"여성한부모를위한한부모교실" 단독비행"
14	서울남부	2차학부모급식간담회
15	서울남부	회원만남의날
20	원주	보육정책토론회
24	원주	원의날
25~26	원주	들꽃나들이2. 도농교류캠프(1박2일)
30~31	여성환경센터	초경캠프
30	원주	새내기회원교육
여성주간	서울남서	여성영화제
중순	서울남부	생협설명회
중순	춘천	민우여성학교
중순	서울남서	어린이환경캠프(2박3일)

여성환경센터의 소모임 Eco 끼리를 소개합니다.

2004년 들어 야심차게봄부터 시작한모임이 에코(ECO)끼리입니다.

소모임 이름부터 특별하게 민우회 전담 작명가에게 작명을 부탁하였고 모임에 참여할 분들도 심화면접(?)을 통해 선발하였지요.

현재 격주목욕일 오전과저녁에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모임은 아이가 있는 주부답게 여성건강과 삶에 대한 관록있는 이야기들이 모임 중에 펼쳐집니다. 저녁모임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차분한 스터디와 찐한 뒷풀이를 할 수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재는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입니다. 앞으로는 환경강좌와 심화스터디, 대안생리대만들기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02-734-1045)

진주여성민우회의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 평등, 평화, 사랑의 배움터 ’ 해야해야 공부방이 비가 새는 집에서 고생고생을 하다가 40평짜리의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합니다. 둘러보는 사람마다 탐을 내며 프리미엄을 얹어 줄테니 자기들 사무실로 달라고 매우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자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이지역에서 제대로 모습을갖추어져 가는 것같아 우리들도흐뭇하고 신이 납니다. 6월부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제 2기를 맡게되는 공부방은 선생님도 한 분 더 늘리고 아이들도 모집하여 지역에서 공부방의 역할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체험학습, 평등, 평화, 사랑을 피워내는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우리 공부방아이들은 밝은 햇살과 같은빛을가질 수있게 될겁니다.

(연락처: 진주여성민우회 공부방, 055-748-2653)